202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CINE_FEMINISM

성인지 체크리스트와 함께하는

씨네페미니즘 영화글 모음집

주최_사단법인 함께크는여성울림　　후원_경기도

목차

5 여는글

7 **82년생 김지영** 김화숙

11 **방랑자** 남양숙 김성애

18 **올란도** 권성혜 어정은 심용선

29 **찬실이는 복도 많지** 정미림 이은미 권성혜 신은향

43 **윤가은 감독과의 대화** 조창아 이은미 김화숙

53 **콩나물** 이은미

60 **밤쉘** 김화숙 심용선

66 **당갈** 어정은

69 **파리의 딜릴리** 조창아 신현경 김화숙 어정은

78 **툴리** 권성혜 조창아 어정은

87 **69세** 류정희 심용선

92 **비커밍 아스트리드** 김화숙 어정은 곽미경 심용선

101 **위 왓치 유** 어정은

104 **쁘띠마망** 유미경 신은향 심용선

112 **코다** 김화숙 어정은

119 **빌리 홀리데이** 김혜정 김화숙 심용선

127 **아무도 모른다** 신은향 어정은

134 **걸어도 걸어도** 박영미

141 **종이달** 박영미

146 **세자매** 성희령 김화숙 김희정

153 **남매의 여름밤** 이희남

157 **일 포스티노** 이미진

161 **큰 엄마의 미친 봉고** 김화숙

165 **포겟미낫** 김화숙

168 **그녀에게** 신은향

173 **더 와이프** 신은향

177 부록 - 씨네페미니즘 성인지 체크리스트

179 부록 - 씨네페미니즘 성인지 체크리스트 점수

씨네 페미니즘 영화글 모음집을 내며

울림에서는 2021년 경기도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으로 성평등 영화보기 및 토론을 진행했다. 씨네페미니즘 평론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7회의 강좌를 했는데 씨네페미니즘의 역사, 21세기 한국영화 담론 등 꼭 필요하고도 심도 깊은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는 2회의 평론 글쓰기도 포함된다. 이후 7회의 영화토론, 1회의 감독초빙, 3회의 영화 관람이 있었다.

영화토론은 참여자들에게 젠더 관점의 영화세계를 풍성하게 열어주었으며 영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마력의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즐거움이 배가 되게 했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도 신나고 재미있을 수 있다니! 씨네페미니즘 영화토론은 신세계였다.

영화토론이 이번 사업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행을 맡은 김화숙샘 덕분이다. 영화 선정부터 토론할 논제 구성,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장을 펼치는 역할까지 그 노고가 컸기에 토론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

씨네페미니즘 글모음집은 그 행복한 시간의 산물이다. 모아진 글은 전문적인 작가의 글이 아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의 솔직한 느낌을 담은 글이다. 글을 읽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성인지 체크리스트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을 조합하여 사용했다. 이 리스트는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평등 요건을 채우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성인지 체크리스트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젠더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KIM JI-YOUNG, BORN 1982

82년생 김지영

KIM JI-YOUNG, BORN 1982, 2019

감독 김도영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118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여자는 분노로 성장한다

김화숙

나는 분노하는 여자가 나오는 영화에 꽂히곤 한다.

왜 그럴까? 분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 걸 본 적 있던가? 살면서 화내는 여자가 이기는 걸 보았나? 내 경험 범위에서 볼 때 여자의 분노는 '죄'와 '추함'에 가까웠다. 화내지 않고 미소로 감내하는 여자에게는 인정과 칭찬이 돌아가지 않았던가.

어쩌랴. 중년의 나는 어느날 '뚜껑이 열린 여자'가 되어 화산같은 분노를 폭발하고 있었다. 그동안 배우고 실천하려 애쓴 모든 '덕목'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인간이 분노를 억누르고 참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란 건 착각이었다. 여자의 분노는 결코 근거 없는 변덕이 아니었다. 이유없이 일어나는 감정은 없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도 내겐 분노하는 여자가 보였다.

김지영이 아니라 엄마였다. 지영이야 배울만큼 배우고 '좋은' 남편 만나 귀여운 아이까지 낳았다. 육아휴직으로 잠시 직장 쉰다고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건 뭐냐, 화를 낼 일이 없어 보인다. 복에 겨워서 그런다고 오히려 욕바가지 뒤집

어쓰기 십상이겠다. 지영 스스로도 '별 게 다 섭섭하다'라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지 않던가.

지영은 심각한 해리장애를 앓는다. 다중 인격 장애라고도 하는 정신과적인 병이다. 지영은 자기 솔직한 감정과 목소리대로 살지 못한다. 엄마도 되고 죽은 학교 선배도 되어 다른 사람으로 빙의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는 왜 내지 못하게 됐을까?

영화는 엄마의 분노를 통해 지영이 마음을 대변한다. 지영이 아빠가 아들을 위해 한약을 지어온 날, 누워서 앓던 엄마가 총알처럼 튀어나온다. 한약 상자를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쳐버리고 남편과 아들을 향해 분노폭발하고 소리 지른다.

"당신 눈엔 아들밖에 안 보여? 사지 멀쩡 한 아들 한약은 지어오고 아픈 딸내미 거는 왜 안 사와? 그러고도 아빠야? 이게 다 뭐라고. 이까짓 게 다 뭐라고! 지영아~~."

엄마 역시 지금까지 언제나 남편과 아들을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살았을 것이다. 엄마는 이제야 지영이를 아프게 한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을까. 한약 상자로 상징되는 그 질서, 아버지와 아들을 우선하는 그 구조를 엄마는 패대기치고야 만다. 엄마의 분노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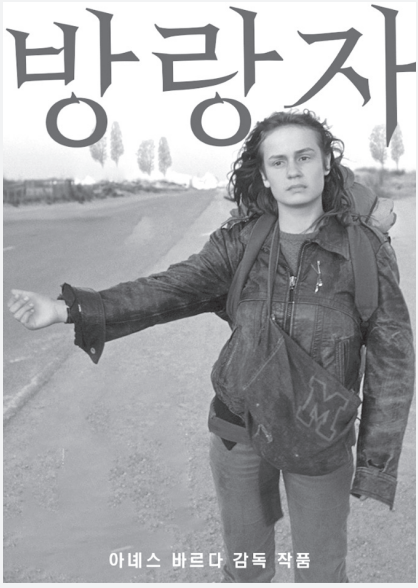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영화는 엄마의 분노를 사적 영역에 제한해 버렸다. 가부장 문화가 여성에게 용인하는 한도를 결코 넘지 못했다. 여자는 함부로 화내면 안 돼. 단, 자식을 위해 화내는 엄마 캐릭터는 예외. 바로 그거였다. 엄마는 딸을 위해 폭발했고, 딸은 회복돼 갔다.

김지영이 해리장애와 우울을 글쓰기로 이기길 응원해 본다. 점점 더 자기 목소리를 솔직하게, 두려움 없이 드러낼 수 있길 바란다. 여성의 분노가 단지 집안의 태풍으로 끝나지 말길, 그 우울과 해리장애이면의 구조까지도 바꾸길 말이다.

영화 <거룩한 분노> 속 노라의 분노는 달랐다. 1971년 여성참정권에 대한 주민투표를 몇 주 앞둔 스위스 작은 마을. 조용하고 보수적가정의 주부인 노라는 우연한 기회에 참정권 투쟁에 동참하게 된다. 남편과 가부장적인 공동체는 여성들의 투쟁을 방해한다. 결국 여성들은 분노로 연대하며 싸운다. 이 심각한 이야기를 여성 감독은 충분히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

노라가 여성 참정권 투쟁에 참여하면서 남편은 더 이상 노라를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두 아들, 즉 남자들은 집에서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게 된다. 여자들이 밖에서 하는 일을 함부로 막아서지 못한다. 결국 노라가 투표함에 첫 투표용지를 골인시키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며 영화가 끝난다.

책 <아름다운 분노>의 한 문장으로 여자의 분노를 정리한다.
“분노를 표현하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여자는 성장한다.”



방랑자

Vagabond, Sans Toit Ni Loi, 1985

감독 아녜스 바르다
장르 드라마
국가 프랑스
러닝타임 105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집도 법도 없이 내 마음대로 죽을 자유

남양숙

얼마 전, 친구가 팔순 넘은 노모와 병원에 갔다가 연명의료 중단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노모와 본인의 서류를 작성 했다고 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서 그게 가능해?" 물었고 친구는 내 물음에 대답 대신 평소 노모와 연명치료에 대한 공감이 있긴 했지만 막상 서류를 내고 나니 기분이 묘했다고 했다. '선택한 죽음'이 주는 파장이 너무 커서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선택한 죽음

야네스 바르다의 <방랑자>는 길 위의 여자 '모다'의 죽음을 영상으로 복기하는 영화다. 그녀의 죽음이 타의인지 자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감독은 어떤 언질을 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의 죽음이 그녀에게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연명만을 위한 치료를 거부하듯, 생존만을 위한 삶을 거부한 죽음. 원제가 '집도 법도 없이(Sans toit ni loi)라니 생존만을 위한 삶을 거부한 모다의 행적과 일치하는 제목이다.

카메라는 그녀의 죽음부터 길 위에 처음 등장하기까지 그리고 또다시 죽음에 이르기까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분증조차 없는 모다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존재한다. 그들의 입은 그녀 죽음의 목격자가 되고 증언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한 길 위의 여자'를 처음 봤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떠도는 그녀를 보고 어떤 이는 '눈이 텅 빈 부랑자 같다.'고 했지만, 모다 자신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캠핑'이라고 말한다. 떠도는 자와 캠핑하는 자의 간극은 그녀를 보는 시선의 차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그녀를 떠도는 자로 기억하지만, 캠핑하는 자로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캠핑'을 인정하고 동경하는 것은 영화 초반의 마을 소녀뿐이다.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차를 태워줬는데 무례 했다고, 일을 허락했는데 불성실했다고 말하며 그녀를 옹호하지 않는다. 철학을 공부한 농부는 은근히 정착을 한 자신을 봄내기도 한다. 순간순간 자유를 선택한 모다를 부러워하지만 일하지 않는 그녀를 타박한다. 농부의 치즈를 훔쳐 다시 거리를 선택한 모다.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외로움은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중간은 없다

염소농장 주인은 그녀에게 숙식 제공과 감자 농사를 지을 땅을 제공하며 정착을 권한다. 비서 경력이 있는 모다는 '자유로운 길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상사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 대사는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리 생활 전의 모다를 언급한다.

비서. 정말 그녀와 어울리지 않은 직업이다.

영화에서 긴 장면을 할애한 교수와의 만남 이후로 모다의 거리 생활은 더욱

더 거세진 폭력과의 싸움이었다. 안락한 차와 음식을 주던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버려진 후 그녀는 성폭력을 당하고 거리에서 나무 모양의 치장을 한 남자들에게 빨간 액체(포도주)를 뒤집어쓰고 공포에 떤다. 그런데 모다에게 편안히 대했던 교수는 모다에게 왜 거리에 있냐고 질문을 한다. '길에서 마시는 샴페인이 좋아서'란 모다의 말을 듣자마자 교수는 그녀를 길에 버려두고 차를 몰아 떠나버렸다. 교수는 왜 갑자기 모다를 버렸을까? 영화를 보면서 유일하게 영화보기를 중단하고 한참 생각한 부분이다. 여교수는 그녀에게 중독되는 자신이 두려웠을까? 아니면 길이 모다에게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일까?

불같은 삶, 얼음 같은 죽음

잠자던 낡은 건물에 불이 나 겨우 빠져 나온 모나는 마을 포도주 축제에서 포도주를 뒤집어쓴다. 길에서 마시는 샴페인을 좋아하던 모다는 결국 걸레 같은 담요에 묻은 포도주 향을 맡으며 포도밭 웅덩이에 넘어져 죽는다. 죽음을 앞둔 그녀의 눈길과 포도주에 절은 담요를 움켜쥐는 손.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스쳐 지났던 장면이다. 그 손이 자유와 삶에 대한 그녀의 자세 같아 마음이 아팠다. '같은 장소에서 이틀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는 모나는 결국 그 포도밭 고랑을 자신이 머무르는 마지막 장소로 선택했다.

묘한 연결과 충돌이 혼재하는 이 영화는 한번 보고 난 후에는 '뭐지?'였다. 잘못 보면, 게으르고 쓸모없는 거리 여성의 '쓸쓸한 죽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여자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외치는 반여성주의 영화로도 읽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의 감독이 여성주의 감독이라는데 어떤 지점에서 감독의 시선을 느껴야 할까 의문을 가졌다. 다시 영화를 보면서, 결심했다. 감독의 시선도, 목격자의 증언도 아닌 내 감정에 충실해 보기로 했다. 내가 모다가 되어보자. 내가 모다

를 선택하자, 그러자 보이는 많은 것들, 앞서 언급한 손도 보이고, 바다에서 온 여자라는 목격자의 증언도 들렸다. 일하는 것 보다 책을 읽는 이 시간이 좋다는 중얼거림도 더 잘 들렸다. 자유를 구속하고 정착하기를 강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거부하고 자기 삶을 살아 낸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자기 삶을 살기위해 차가운 자유를 선택한 모다 이야기.

결국 죽음으로 차가운 자유를 얻은 그녀가 나에게 묻는다.
'너는 자유 하냐?'고.

방랑자

김성애

방랑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들 그 누구도 쉽게 방랑자가 될 수 없다.
방랑자는 진정 용기 있는 자만이 될 수 있다.

젊은 여자가 방랑자가 된다는 것은 비슷한 나이의 여성에게는 그 자유를 부럽게 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부럽게 하게도 한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심리나 상태를 신발(부츠)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처음 주인공은 신발을 나무와 돌로 고쳐가며 신고 다닌다. 열심히 떠나려는 의지가 보인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신고 있는 부츠의 자크가 고장나자 신발을 호크만으로 고정시키면서도 계속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교수한테 버림받고 숲으로 들어간 주인공은 성폭력을 당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아순을 만나고 이름을 알려주고, 손까지 까지면서 일을 배우지만 여교수에 이어 눈빛이 친절하고 착한 아순한테까지도 버림을 받은 주인공의 신발은, 이제 점점 벗겨지면서 방랑자로서의 길을 걷는 게 힘들어진다.

역 의자에 누워있는 주인공의 신발은 발만 간신히 끼워져 있을 뿐 질질 끌린다. 주인공의 몸도 마음도 신발처럼 겨우 살아있다. 마지막 포도밭 장대에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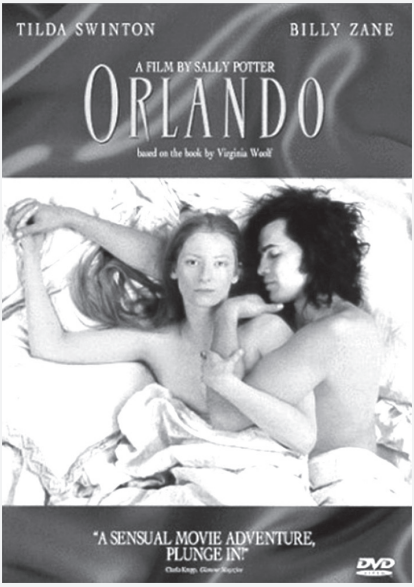
려 넘어진 주인공. 그때 주인공의 발에서 신발이 벗겨졌으면 더 좋은 연출이 아니었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가장 크게 웃는 장면이 있다.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는 할머니와 서로 코냑을 마시며 큰소리로 하하하하 웃는데 서로 무엇이 통해서 일까? 방랑자의 마지막 도착지도 할머니와 같은 죽음이어서 일까? 역에서 같이 지내던 무리들에게서 싸움이 나고 불이 나자 모나는 급하게 담요 한 장만 들고 그곳을 떠나 비닐하우스에서 추운 밤을 보내고, 빵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모나는 마을에서의 포도축제에서 기겁을 하듯 몹시 놀라게 된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마을에서 나와 포도밭을 걷다가 넘어진 주인공은 일어나려다 다시 누워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된다.

양치기 남자는 자유와 구속의 중간을 택했던 반면, 모나는 완벽한 자유를 추구한다. 양치기 남자는 모나를 자기방식대로 살길 바라면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나에게 이것저것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길에서까지 상사를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모나는 짐을 싸서 떠나버린다.

우리들 모두는 마음속에 모나와 같은 방랑자를 숨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그것을 들켰을 때 나 자신이 두려워지고, 혼자 자유롭게 떠나는 모나를 부러워하다가, 용기 없는 나를 지워버리려 애쓰면서 살다가도, 문득 방랑자 모나를 만나면 깨닫게 된다. 용기 없는 나를….

결국 방랑자 모나는 양치기의 말처럼 시들어 버렸다. 방랑, 그것은 시들어가는 것이다. 쓸모없다는 걸 증명해서 자기가 거부한 시스템을 돕는 격으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것보다, 혼자 왔던 것처럼 혼자 길에서 죽는 것이 더 방랑자답다.



올란도

Orlando, 1992

감독 샐리 포터
장르 드라마
국가 프랑스, 영국 등
러닝타임 93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성(性)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권성혜

영화 <올란도>는 1600년 부터 2000년까지 약 400년 동안 주인공 '올란도'가 겪는 이야기를 7개의 소제목으로 엮었다. 7개 주제는 각각 독립적인 서사 구조로 되어있다. 올란도는 두 개의 성으로 산다. 아름다운 소년으로 남성으로 살던 올란도는 죽음, 사랑, 시, 정치를, 여성으로 살 때는 사회, 성, 탄생을 이야기 한다. 죽음에서 시작하여 탄생으로 끝나는 제목도, 집으로 귀환이라는 공간적 회귀도, 인간의 순환을 시사하는 것일까.

아름답고 젊은 올란도가 마음에 든 엘리자베스 1세가 '변하지 말고, 병들지 말며, 늙지도 말아야한다.'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죽는다. 부모는 죽고 올란도는 약혼한다. 약혼녀가 있음에도 올란도는 러시아 대사의 딸 사샤를 사랑하게 된다. 약혼녀도 버릴 만큼 사랑하니 당연히 사샤도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 믿는다. 많은 걸 가진 남성이니 당연 여자도 사랑할걸로 생각한 걸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났다. 사샤가 떠나자 '나를 배신'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시(詩)에 빠진다.

시도 시들해진 올란도는 터키 대사로 떠나는데 그곳에서 전쟁의 실상을 겪고 나서 깊은 잠에 빠진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한 시간까지 포함한 7일. 같은 7일을 자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다.

성(性)이 바뀐 올란도는 관객을 향해 '같은 사람'이라고 독백을 하지만 남자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여성 올란도는 코르셋을 입고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위를 갖게 되고 남성들의 조롱을 겪는다. 그녀가 미로로 만든 정원을 뛰는 동안 지구는 돌고 시간을 흐른다. 시간이 딱 멈추고 다른 세상에서 자유주의자 셜머딘을 만나 사랑을 한다. 함께 떠나자는 그의 구애를 뿌리치고 그녀는 독립적인 삶을 택한다. 삶은 또 가고 현대로 된다. 현대인이 된 올란도는 작가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출판하고 딸과 함께 자신의 성으로 돌아와 첫 장면에 나왔던 나무 아래에 앉아 끝이 난다.

영화를 보는 내내 두 성(性)을 연기하는 틸다 스윈튼의 시선에 빨려 들어갔다. 남성을 연기할 때는 강인한 눈빛을, 여성을 연기할 때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나-관객을 향해 이야기할 때, 그저 말없이 나를 볼 때, 그녀가 혹은 그가 나를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다. 올란도는 관객에게 시선을 정면으로 맞춤으로써 관객과 함께 영화를 만든다는 흡입력을 준다.

시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선을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남성일 때 받는 시선과 여성일 때 시선이 다르다는 것은 사회가 성을 다른 관점으로 바로 본다는 의미가 아닐까. 여자가 된 올란도가 '같은 인간이야.'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녀의 생각일 뿐 세상은 다르게 보고 다른 잣대로 보고 있다. 가령 올란도가 사샤를 사랑하자, 약혼녀는 올란도를 향해 "나를 배신했어."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죄책감을 없이 "그렇지 않다.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올란도가 사샤가 자신을 떠났을 때는 "나를 배신했어."라고 분노한다. 남자인 자신은 사랑을 따라 움직일 수 있고 여자는 안 된다는 이중적 시선을 보여준다.

남자일 때 그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됐었다. 여자로 변하자 올란도는 소유권을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여성이 되었기에 아들

이 없으면 소유한 집을 빼앗기는 게 법이었다. 그녀는 코르셋으로 몸을 묶고 거추장스러운 복장도 견뎌야 했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도움으로 본성을 발견하는' 존재라는 남성들의 조롱섞인 시선을 견뎌야 한다. 자신이 쌓아 올린 영국 대사로의 명성도 다 소용없는 물거품이 된다. 사회적, 법적으로 안전한 신분을 헨리 공작이 구애로 제공하지만 이것도 거절한다. 거절한다는 것은 주체적 삶을 찾아가고 싶은 것은 아닐지.

여자가 된 올란도는 미로도 달리고, 들판도 달리는 행위로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후 사랑하는 셜머딘을 따라가지 않는 결정에서 비로소 독립된 인간으로 삶을 갖는다. 결혼하고 함께 하는 생활에서 독립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가 은유와 상징을 지니는 예술임을 생각할 때 혼자 남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린다는 행위로 자신을 지킨다면 임신한 채 전쟁터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며 달리는 올란도 모습에서, 타고난 성(性)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인간으로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태어나면서 가진 성(性) 때문에, 보이는 모습의 성(性)으로 인간은 다르게 대접받아야 하는가.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지던 사회처럼 인간이 성으로 차별받고 수용 당해야 하는가. 자유주의자 셜머딘이 한 "내가 여자라면, 자식을 위해 인생을 바치지 않겠다. 여성의 친절함도 버리겠다." 말처럼 여자라도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고 친절함을 장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영화 속 올란도는 400년을 산다. 논리적으로 이해는 어렵지만, 남성 여성이란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통합된 인간을 보여주고 싶은 주제를 생각한다면 가능하다.

꿈꾸는 시선으로 천사를 바라보는 틸다 스윈튼의 눈빛을 보며 노래 가사를 음미하는데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다.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떨지도 않으며 현재 할 수 있는 만큼 두 발을 단단하게 딛고 서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통합된 인간으로 삶을 사는 올란도가 부러웠다. 그가 지키고 견딘 시간이 비로소 천사의 노래 가사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내가 가노라 내가 가노라.
마침내 과거와, 나를 유혹하는 미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내가 가노라 내가 가노라
여자도 남자도 아닌 내가 여기 있나니

우린 하나로 합쳐졌네
인간의 얼굴로

나는 지구 위에 있고
우주에도 있다네
나는 태어나고 죽는다네

나는 지구 위에 있고
우주에도 있다네
나는 태어나고 죽는다네

올란도, 여자로 변하자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심용선

옛날 옛적에 여자보다 예쁜 남자귀족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여자가 되었다. 영화 <올란도>가 비현실적으로 성별이 바뀌고 시대를 뛰어 넘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동화처럼 보여서 그렇지 않을까싶다. 명화를 보는 듯 아름다운 장면들이 고전적이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주고 시대가 바뀌는 갑작스런 장면전환이 평면적으로 그려져 옛이야기 그림책을 연상시켰다.

1600년 영국 귀족의 아들 올란도는 여성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특히 그의 길고 멋진 다리를 사랑한 여왕은 올란도에게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말라는 말을 남긴다. 그 말대로 올란도는 400년을 살게 된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페미니스트 감독 샐리 포터가 영화화 한 것이라고 하니 그 안의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집중하면서 보게 되었다.

영화는 몇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죽음', '사랑', '시', '정치', '사회', '탄생'이다. 첫 번째 '죽음'에서 영생의 축복을 준 여왕이 죽고 '사랑'에서 러시아 대사의 딸 사샤를 사랑하게 된다. 올란도가 약혼녀가 보는 앞에서 사샤에게 애정행각을 벌이자, 약혼녀는 그에게 "나를 배신했다"고 말한다. 이에 올란도는 "그렇지 않다.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때 올란도는 카메라

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장면마다 주인공 올란도는 관객을 쳐다본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샤가 올란도를 떠나버렸다. 절망한 그가 말한다. “나를 배신했어.” 관객을 응시하면서 분노의 눈으로 말하는 모습에 절로 실소가 나왔다. 약혼자를 배신했을 때 자신을 정당화했던 말과 비교 대비가 되는 번번한 장면을 그렇게나 당당하게 표현한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비교 대비되는 장면은 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해리 대공(앤여왕의 특사, 그의 표정을 기억해 놔야한다)이 쏜 총에 적군이 쓰려지는데, 아직 살아있는 적을 버려야하는지 번뇌를 느낀 올란도는 깊은 잠에 빠진다. 잠에서 깨어난 올란도는 여자로 변한다.

“같은 사람이야. 변한 건 없어. 다만 성이 바뀌었을 뿐.” 여자가 된 올란도는 성별이 바뀌자마자 세계관이 급변한다. ‘남자’가 아니라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코르셋을 꽉 죄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 풍성하고 화려한 드레스는 너무 커서 앞으로 편하게 걸을 수가 없다. 여성으로 살아가기의 시작은 몸에 대한 구속과 제약이었다.

올란도가 문학 모임을 주최하는데 지배인이 간섭을 한다. “아가씨 혼자 독단으로 행동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사회는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문학모임에서는 여성비하와 조롱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다. 여자들은 욕망이 없다. 봄낼 뿐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등등. 혼란에 빠진 올란도가 물어본다. “여러분 모두 시인이고 여성을 찬미하면서 부인이나 여성에 대한 존경과 부드러움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박한다. 자신들은 여성을 찬미한다고. 다만 지성은 여성에게 맞지 않고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본성을 발견하며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길을 잃는다고 말한다.

기막힌 상황은 계속된다.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저택과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문이 도착한다. 이를 본 해리(1710년의 해리 대공)는 그녀를 구제하겠다며 청혼을 한다. “난 영국을 대표하고 당신은 내 것이오.” 그 말을 할 때 해리는 강압적이고 단호하다. 이 말은 올란도가 사샤에게 했던 말과 같다. 올란도는 해리를 거절한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한 판결문이 올란도에게 도착한다. 아들이 없으면 집을 가질 수 없다고 써있다. 그때 자유로운 영혼의 셜머딘이 나타난다. 그의 발을 씻어 주며 올란도가 “내가 남자라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라고하자 셜머딘이 “내가 여자라면, 자식을 위해 인생을 바치지 않겠다. 여성의 친절함도 버리겠다. 그 대신 외국으로 가겠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셜마딘은 올란도에게 미래를 향해 같이 떠나자고 하나 그녀는 거절하고 현재에 남는다.

‘탄생’. 그녀는 딸을 낳았다. 그리고 작가가 되었다. 출판업자(올란도가 쓴 시를 조롱했던 유명시인과 같은 배우가 연기한다는 것이 재미있다)가 러브스토리를 넣고 해피엔딩으로 하라는 등 헛소리를 하지만 명실공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 된 것이다.

올란도는 남자의 삶보다 여자의 삶을 더 길게 살았다. 막강한 남성 귀족이었을 때 그는 권력 그 자체였고 그의 언어는 단호했다. 그러나 내적으로 불안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맸다. 여자가 된 올란도는 온갖 사회적 제약, 가진 것을 빼앗기는 폭력적 상황에도 내적으로 질문하면서 성장을 했고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게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올란도의 눈은 많이 달라져있다. 뚫어질 듯 쏘아보던 눈이 부드럽고 평화로워졌다. 여자가 되고 그녀는 인간이 되었다. 남자의 가치를 외치면서 다른 성을 끊임없이 대상화시켰던 시대를 지나 이제 그녀 안에서 모든 것이 융합되었다.

응시와 현재

어정은

인간이 400년을 살 수 있다면, 아니 살아야만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오랜 시간을 남자로 살았다가 어느 날 여자로 변해 또 다른 오랜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의 서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버지니아 울프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했다는 <올란도>는 그런 기이한 이야기이다.

응시

영화 <올란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특이하다. 비현실적인 설정을 맥락 없이 전개하고, 깊은 고민이나 설명 없이 중요한 사건이나 시대가 건너뛰는 등, 내용을 따라잡기 힘든 면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것은 올란도가 영화 도중에 갑자기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다. 중요한 순간마다 관객을 응시하는데 말없이 그럴 때도 있고 아예 관객을 보면서 말을 하는 장면도 있다. 그(그녀)가 카메라를 응시할 때 모든 연극은 갑자기 정지되고 사방은 조용해지며 관객은 응시하는 그 눈으로 빨려 들어간다. 뚫어지게 응시하는 그(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하게 된다.

응시는 매우 유머러스한 느낌도 준다. 남자였을 때 올란도는 약혼녀가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운다. 약혼녀가 그에게 배신자라고 말하자, 올란도는 카메라

를 응시하며 절대 그렇지 않다, 남자는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당당하게 말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떠나자 그는 관객을 응시하며 날 배신했다고 분노에 차서 말한다.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기적인 남자 올란도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또 남자의 가치에 대해 힘차게 충성, 용기를 소리쳤던 올란도가 여자로 변하자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신은 성별이 바뀌었을 뿐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한때 여자를 무시하며 위대했던 가치를 부르짖었던 그가, 여자가 된 순간 자신은 사람이라고 선언 하는 것이. 그녀는 재빨리 알아버린 것이다. 여자보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한테 득이 된다는 것을.

응시. 이런 시도가 감독으로서 굉장한 모험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야기의 맥(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으니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전달하고자하는 그 무엇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에 대한 답을 영화 끝 장면에 나오는 천사의 노래에서 찾았다.

응시로 드러나는 현재성

가진 것이 많았으나 결핍된 내면을 가졌던 남자 올란도의 과거의 끈은, 여자로 변하고 현재에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끊어진다. 꿈이 있다고 믿었던 미래에도 더 이상 유혹되지 않는다. 올란도가 사랑했던 자유로운 영혼의 남자 셸머딘은 과거에 머물던지, 미래에 살던지 선택하라고 했다. 그때 올란도는 중요한 말을 한다. “그 미래는 언제 시작되죠? 오늘인가요? 아니면 언제나 내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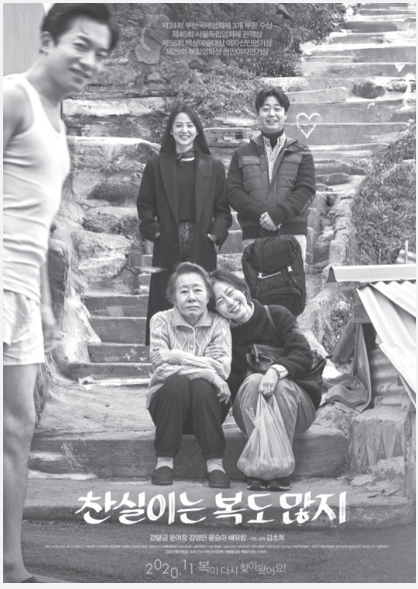
셸머딘은 주장한다. 바람을 타고 ‘남자의 미래’를 향해 가야한다고. 올란도에게도 같이 가자고한다. 남서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셸머딘은 떠난다.

미래의 유혹도 결국 거부하고 올란도는 현재에 남는다. 현재에 남은 그녀는 전쟁을 통과한다. 임신한 몸으로 포화 속을 뚫고 사선을 넘는다.

작가가 된 올란도는 딸과 함께 이제는 유물이 된 자신의 저택으로 온다.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올란도가 기대어 앉았던 떡갈나무에서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는다. 남자로 그리고 여자로 살았지만 현재에 충실했던 올란도는 마침내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고 천사는 노래한다. 올란도는 환희의 눈물을 흘린다.

아마도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되려면 400년이나 필요할 수도 있겠다. 남자의 가치를 드높였을 때의 오만한 세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껏 달려야하는 미로의 시간,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깨달음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테니까.

LUCKY CHAN-SIL



찬실이는 복도 많지

LUCKY CHAN-SIL, 2019

감독 김초희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96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찬실이는 복도 많지

정미림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을 꼬박 기다렸다. 어제 아들이 영화데이트를 하러 간다는 소리에 나도 영화데이트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 코비드19 감염 방지로 언텍트 시대가 열리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들을 채팅으로 할 수 있다.

함께 영화를 본 다른 샘들은 눈물이 났던 장면들을 얘기하던데, 물론 나도 눈물을 흘리긴 했다.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났다. 이 영화 장르는 인터넷 검색 영화 정보로는 드라마, 멜로, 판타지라는데 이건 내가 볼 때 블랙코미디였다. 요즘 뜨는 배우로 주인공 역을 맡은 강말금의 연기가 참 강말금스러웠다.

장국영. 속옷 바람의 그 남자. 동네 주민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주인공 주변에 필요할 때 나타나서는 꽤 괜찮은 조언들을 해준다. 이 사람 왠지 매력적이다. 나에게도 나타나 조언도 해주며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 꽤 유니크한 요소다.

배경음악. 첫 신부터 흘러나오는 장엄한 클래식은 영상에 맞지 않게 너무 장엄하더니 결국 영화감독을 죽였다. 주인공이 영화를 안 하겠다며 책을 모두 정리하며 책을 묶은 테이프를 가위로 자를 때, 배경음악도 싹뚝 꺼진다. 뭔가

세련되지 않은듯하면서도 다 이유가 있는 배경음악은 이 영화를 닮은듯하다. 세련되지 않은 주인공의 말투와 대사는 뭔가 불편하지만 인간적이면서 그런 이유가 다 있다. 마지막 영화가 끝나면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요즘 뜨는 국악 가수 이희문의 목소리로 이 영화의 주제곡이다. 노래가사 내용이 결국 이 영화에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까? 영화평론들이 궁금해졌다.

영화를 보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 혹은 목적을 두고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페니미즘적 관점으로 영화감상을 해야 하는 것. 좋지도 않은 머리로 등장인물 그들의 대사나 행동 등을 다시 떠올려보았다. 만약 주인공이 남자였다면 내가 살아왔던 시대의 평범한 영화 주제였을 것 같았다.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먼저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외롭다느니 안아달라느니 뒤에서 먼저 안는 행위 등, 결혼보다는 노동을 통해 먹고사는 일을 하거나 찾거나, 미모의 여배우가 곁에 있고, 함께 일했던 스텝(직장동료)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주며, 영화를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를 밤새 적어 내려간다. 영화 주인공이 그가 아니라 그녀인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의 이십대 직장생활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졌다. <찬실이는 복도 많아> 이 영화는 인간드라마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좋았다.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먹고 사는 일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번뇌하니까. 여자도 그렇다고. 영화의 첫 대사 “영화는 한 개의 별점이나 두 개의 별점이 아니야.” 처럼 삶도 여자나 남자로 나누어져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로써 바라봐야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영화였다. 그래서 별점을 줘야 한다면 나에게는 별5개 중 ★★★★★인 영화이다.

기억나는 장면이나 대사: 멀쩡하게 옷을 입은 장국영이 주인공 찬실이 방에 나타났다. 하이얀 속옷 바람의 평상시 복장과 대비되는 검은색으로 팔, 다리,

목까지 감싸진 복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비장하게 아코디온을 연주하라고 그녀의 어깨에 들려준다. '희망가'가 울려퍼진다. 장국영은 우주에서 응원하겠노라며 작별을 고하려고 그렇게 비장한 복장으로 나타났나 보다.

"장국영씨,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저는 늘 목말랐던 것 같아요. 사랑은 몰라서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은 나를 꽉 채워줄 거라 믿었어요. 근데 잘못 생각했어요. 채워도 채워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구요.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꿈이 아니예요. 저요, 사는 게 진짜 뭔지 궁금해졌어요. 그 안에 영화도 있어요." 영화 마지막 씬은 찬실이가 보름달을 보며 "우리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끝말을 완성하지 않은 채 끝나버린다. 여운이 맴돈다. 우리는 인생을, 믿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치 그게 인생인 것처럼. 나도 찬실이처럼 사는 게 궁금해 졌다. 무엇이 내 갈증을 채울 수 있을지.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 가사가 의미심장하다. 씬이 나에게 희망을 묻는다.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화락에 엄벙덤벙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세상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찬실이는 복도 많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아
남자도 없고 새끼도 없고
찬실이는 복도 많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아
사랑도 가고 청춘도 가고
찬실이는 복도 많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아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찬실이는 복도 많네
에헤이 에헤이야 어어라 우겨라
찬실이는 복도 많네
에헤이 에헤이야 어어라 우겨라
찬실이는 복도 많네
에헤이 에헤이야 어어라 우겨라
찬실이는 복도 많네
에헤이 에헤이야 어어라 우겨라
찬실이는 복도 많아

긍정심리학으로 현실을 비꼬는 것일까? 우겨라.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복도 많다고 우기고, 그렇게 나를 그리고 너를 최면 걸어. 살다 보면 훗날 비문에도, 조의 온 사람들의 말에서 그 사람은 복도 많았다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하려나. 얼쑤.

사라도 꼬처럼 다시 도라오며능 어마나 조케씀미까?

이은미

‘시와 꽃 그리고 할머니’ 그것은 맞얽힌 우주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영화에는 서로 맞선 둘이 하나가 되는 맞얽힘 우주가 담겼다. 제목조차도 그렇다.

복이라곤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는 주인공 찬실이는 마흔 살이 되도록 영화 일만 하던 PD였다. 갑자기 함께 일하던 감독이 죽자 영화판에서 고아가 된다. 찬실이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하늘과 맞닿을 듯한 달동네로 거처를 옮긴다. 그녀의 몸은 높디높은 곳에 있으나, 현실적인 삶은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구렁텅이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자도 없고 새끼도 없고 심지어 사랑도 가고 청춘도 가버린 찬실이.

영화는 답답하고 구질구질한 우리네 일상 이야기를 잔잔하게 보여준다. 결코 진지하지 않게. 극한 상황은 오히려 웃음으로. 우울해질 관객을 순간순간 웃게 만든다. 그 감독영화는 지루하더라, 찬실이를 격려하는 아빠가 보낸 편지에서. 찬실이 눈에만 보이면서 찬실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길을 떠나는 하얀 러닝셔츠와 팬티차림의 장국영 귀신과 나눈 대화에서. 오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되 대신 애쓰며 한다는 콩나물을 다듬던 할머니의 손길에서. 달동네를 찾아와 영화를 만드는 꿈을 함께하자는 영화 동료들과 걷는 발걸음에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영화는 그렇게 찬실이를 둘러싼 관계에 웃음, 꿈, 희망, 공동체, 연대라는 복을 사정없이 집어넣어 기차를 만든다. 막막하고 길며 어두운 터널을 찬실이가 힘을 내어 달려 나갈 수 있게 복을 가득 실은 기차를 만들어간다. 기차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영화 속 대사는 삶의 진리를 읊는 시어가 한 가득이다.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인간의 나이 차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죠, 목이 말라서 채우는 건 진짜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제가 멀리 우주에서도 응원할게요. 시들이 쏟아진다.

할머니가 공책에 연필로 삐뚤빼뚤 옮겨 적은 시는 한글 받침이 꽃처럼 사라져 버렸다. 찬실이는 할머니가 쓴 한 줄 시를 읽으며 오열한다. 지금 그토록 갈망하는 찬실이 모습이 시가 되어 삐뚤빼뚤 공책에 피어있다.

“사람도 꽃처럼 다시 돌아 오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머니에게 시와 꽃은 부모이며 자식이며 지나온 삶이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부모는 꽃처럼 그리운 추억을 남기고 세월과 함께 떠나고, 품에 키우던 자식도 꽃이 열매가 되는 것처럼 성장해서 독립하고, 낮이 밤이 되고, 달이 기울면 다시 차게 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며 계절이 변하고, 찬실이의 불행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게 되는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다.

할머니 한 줄 시는『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머』시집을 꺼내 들게 한다. 칠곡 할매들이 쓴 시를 한 자 한 자 읊는다.

무선 꽃이라도/ 꽃이라면 다조아했어/ 후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혼자 왜로울 때/ 찍언 사진을/ 보면/ 왜로움이 사라진다(꽃 기도이)

우리집 장미가/ 너뭄 에쁘개 피어서 내 마음 아파요/ 재우할버디 떠날고/ 내 마음 이야기을/ 날마다 장미꽃을 보고해요/... 사람 한버 가면 못오나/ 인생이 하번 마음 누구하태 이야기을 할까요(세월 이기연)

... 앞산에서 떠서 뒷산으로 지는/ 해는 오늘도 뜨서 지는대/ 한 번 가신 부모님의 웃음/ 꽃은 언제 피어서/ 다시 볼수 있을련지(보고 싶은 꽃 김학술)

시집에서도 영화에서도 찬실이가 바라본 달에서도 서로 맞선 둘이 하나가 되는 맞얽힌 우주 진리를 배운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남자 캐릭터를 중심으로

권성혜

감독 밑에서 영화의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영화 프로듀서. 찬실이 직업이다. 감독이 없으면 일이 없어지는 위치이다. 그런데 감독이 죽었다. '아, 망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찬실이는 일마저 없어진 것이다. 이제 당장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친한 여배우 집 가사도우미를 하며 일상을 꾸려나간다.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찬실이의 이야기를 갈등이나 대립 구도 없이 잔잔하게 엮고 있다. 영화에는 3명의 남자가 나온다. 등장과 함께 사라지는 감독, 자신을 장국영이라 이야기하며 여기저기서 불쑥 출현하는 난닝구 패션의 남자, 친한 여배우 불어 선생인 김영. 3명의 남성 캐릭터가 찬실에게 어떤 의미일까.

출현과 동시에 죽어버린 감독. 전야제 술자리에서 고~우를 외치다 폭 쓰러져 그대로 허망하게 사라진다. 누군가 찬실에게 “감독 죽음이 그렇게 힘들어요?”라고 묻는다. 당연하다. 감독은 그때까지 찬실이의 존재 이유였다. 찬실이는 감독이 없으면 의미 있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영화 대표 말처럼 '영화는 오로지 감독에 의한 감독을 위한 영화’이기에 영화 프로듀서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누구나 대체할 수 있다. 찬실이가 성장하여 '독립된 인

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감독은 없어야 한다. 찬실의 주체적이고 새로운 삶을 위해 기존의 질서는 무너져야 한다. 감독은 기존 질서이고 찬실이에 의한 찬실이를 위한 삶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난닝구 패션의 남자. 난닝구와 팬티를 입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스스로를 장국영이라 소개하는 남자. 그는 찬실이가 필요할 때 나타나 친구를 해 준다. 연애 이야기도 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녀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준다. 그는 찬실이의 지지자이다. 그런 그를 왜 난닝구에 차림에 가끔은 촐싹거리는 인물로 희화화했을까? 만일 찬실이의 지지자가 근사하면 우리는 찬실이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현실의 찬실이에게 몰입하지 못하고 지지자 캐릭터를 우러러봤을 것이다. 지지자는 가장 '나'다워야 한다. 찬실이와 닮은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처음 장국영이 난닝구 차림으로 뛰어다닐 때 참 낯설었다. 원래 장국영처럼 폼 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우리는 근사하고 멋지고 폼나지 않아도 자신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좀 더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 '멀리 우주에서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영화감독을 꿈꾸지만, 지금은 불어를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김영. 너무 외롭고 지친 찬실이가 감정을 오버해서 안아보고 기대지만 거절하는 남자. 그는 거짓된 사랑으로 찬실이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위 백마 탄 왕자도 아니었으며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찬실이를 동정하지도 대상화하지 않았다.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찬실이를 하나의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 찬실이의 아버지도 있었다. 객지에 있는 딸을 걱정하며 편지 속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감독의 아버지가 읽었다는 편지 내용은 보통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는 딱 그 수준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서 찬실이는 어떤 복이 많은 거냐고 묻게 한다. 결국 사람이 아닐까? 찬실이가 자신을 찾아가게 하는 여정에서 만난 3명의 남자와 주변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관계하는 여자들이 아닐까. 가진 게 없어도 웃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찬실이, 그런 그녀를 동정하지 않고 바라보고 같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여배우,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주인집 할머니. 그들이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믿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신은향

“장국영씨, 지금보다 젊었을 때 전 늘 목말랐던 것 같아요. 사랑은 몰라서 못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로 꽉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했어요. 채워도 채워도 그런 것으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에요. 저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 안에 영화도 있어요."

찬실이는 집도 없고, 남자도 없다. 갑자기 감독이 죽는 바람에 일마저 끊겨버린 전직 영화 프로듀서이다. 돈이 없어서 달동네로 이사를 하고 친한 여배우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산다. 찬실은 배우의 불어선생인 전직 영화감독 김영이라는 젊은 남자를 만나 마음이 끌리는 중, 하얀 속옷 차림의 장국영을 만난다. 귀신 장국영은 영화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찬실이를 위로한다. 찬실이의 집주인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죽은 자기 딸도 영화를 좋아했다며 찬실이를 이해해 주며 따뜻한 밥을 차려준다.

찬실이는 영화만을 위해서 살았다. 불어 선생인 영은 영화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자 찬실은 어떻게 영화 없이 살 수 있냐고 반문을 한다. 위기 속에서 찬실이는 영화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젊은 시절 무작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 그 일이 자기를 꽉 채워질 것이라고 믿으

면서 말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 수는 없구나를 알게 되면서 삶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제 찬실이는 사는 게 뭔지 궁금해졌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영화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했지만 자신의 삶 안에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 할머니의 지나가는 말들이 주옥같다.

"PD가 뭐하는 거야?"
"사람을 모으고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거야?"
"예전에는 저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도 이젠 잘 모르겠어요."
"너도 모르는 것을 하고 있냐?"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 실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주인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깨닫게 해준다.

"안고 지고 있으면 뭘 해. 비워야 채우지."

명언이다. 자신이 좋아한다는 것도 비워야 다시 채워지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할머니를 통해서 찬실이는 삶을 새롭게 알아간다. 삶을 알아가면서 영화가 무언인지를 알게 된다.

영화 첫 부분에 지감독은 술자리에서 말한다.
"영화는 수재가 아니야, 별 하나 별 두개가 아니야. 영화는 영화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찬실이는 달을 보며 말한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찬실이는 시련을 통해서 삶 안에서 영화는 무엇인지를 자기 언어로 찾게 된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영화 주제곡이 흐른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찬실이는 복도 많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아
사람도 많고 청중도 많고
찬실이는 복도 많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아
남자도 없고 새끼도 없고
찬실이는 복도 많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아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찬실이는 복도 많네.

우리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복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항상 자기 옆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영화는 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영화이다.

은향이는 복도 많지
은향이는 복도 많아

윤가은 감독과의 대화

Yoon Ga eun

감독 영화감독
성별 여성
데뷔 2009년 영화<사루비아의 맛>
수상 2017.05.03. 백상예술대상 외 17건

* 울림은 2021. 6. 17. 윤가은 감독을 초청,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영화감독 윤가은에게 스며든 밤

조창아

술을 좋아하는지 묻지 못해 아쉽다. 지금 나는 대화를 더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을 삭이느라 와인을 마시고 있다. 술잔을 부딪치며 뒤풀이를 해야 하는데…. 120분의 대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뒤로 갈수록 윤 감독도 카페에서 수다하듯 우리와 나누는 대화를 즐기는 듯했다. 한동안 윤여정 배우에게 '윤며들었는데' 이제 윤가은 감독에게 다른 버전으로 '윤며들게' 생겼다.

오늘 6월 17일은 울림 씨네페미니즘에서 윤가은 감독을 초청하여 감독과의 대화가 성사된 기념적인 날이다. <손님>, <콩나물>, <우리들>, <우리집>을 만든 윤가은 감독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다니, 어쩌면 코로나가 만들어 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난의 이 시절이 고맙기까지 했다. 울림 사무실까지 직접 초청하기는 어려운 감독이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동안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연예인 또는 유명인을 좋아하려면 처음엔 그의 유명세를 만들어준 능력이 기준이었을지라도, 진짜 애정이 오래 가게 하는 건 그가 지닌 인간미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윤가은 감독은 어떤 질문에든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느낄 수 있었다. 누

가 됐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영화를 넘어 강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윤 감독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오늘만 기다린 건, 영화를 통해 보여준 어린이들에 대한 진심어린 태도와 그것을 가능케 한 촬영 수칙을 읽은 덕이었다.

그런데 윤 감독은 놀랍게도 "수칙을 충분히 지키지는 못했다."고 고백했다. 어느 감독도 그런 전례를 보여준 이가 없기에 시도 자체가 놀라운데, 실천성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다음 영화에서는 더욱 섬세하게 어린 배우들의 인권을 고민할 것 같다는 믿음이 갔다. 남순아라는 후배 감독이 스텝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안했다고 말할 때는, 자신이 생각해 보지 못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자세를 거짓 없이 보여주었다.

촬영하기 전과 촬영 하면서, 그 뒤의 에피소드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과정은 배우들과 스텝들과 함께 만들며 깨지며 다시 세우는 실수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허위와 과장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윤 감독은 어린이 배우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즉흥극 놀이 등을 통해 캐스팅했다면서, 성인배우들처럼 하는 오디션은 어린이뿐 아니라 감독 자신에게도 폭력적이라 느껴 피했단다. 오래된 관습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려고 한 태도가 용기 있어 보였고, 어린이 배우들이 행복했을 것 같았다. 결과를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은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질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술 창작은. 그런 점에서 윤 감독은 건강한 촬영 전, 중, 후를 걸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

감독은 평생 홈드라마만 만들었다는 '오지 야스지로' 감독이 "나는 두부 장사라 두부밖에 못 만든다."고 했다는 말을 인용하며 당분간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영화를 만들 것 같다고 했다. 인생 영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를 최고로 꼽았는데, 사람(혹은 배우)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철학에서 영향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도 추천했다.

경기권 소도시의 소규모 단체 사람들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판단 없이 귀 기울여 듣고 아는 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그의 태도에 끝까지 감사했다. 정성스레 질문지를 만들고 화기애애하고 기운차게 진행해 준 김화숙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물론 주최 측 울림에게도.^^

양다리 랄라~☆°▢

이은미

얼마 전에 <왕십리 김종분> 영화 시사회를 보고서 김진열 감독님 매력에 푹 빠졌었다. 김귀정 열사 어머니로 30년을 살아오신 이야기를 1년 넘게 어머님과 함께하며 다큐멘터리로 담은 영화였다. 긴 세월 어머님의 웃음과 저림, 왕십리 시스터즈 유머와 재치, 밥에 담은 사랑과 연대, 노점상에서 만나는 짜릿한 사계절 변화와 이웃들의 정겨운 만남을 영화 가득 품은 영화였다. 으찌 김진열 감독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랬던 내가, 내가! 어제 윤가은 영화감독님과 대화를 134분 나눈 뒤 변심했다. 사랑은 요로코롬 변하는 거여. 윤가은 감독님은 내가 무지 좋아하는 <콩나물> <우리들> <우리집> <손님>을 찍은 훌륭한 영화감독이다. 네 편 모두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다. 어른들은 조연이다. 영화<우리들>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도 실렸다. 이런 멋진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감동을 선물하니 어찌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는가!

감독과 나누는 대화이니 영화 보며 궁금했던 질문들을 했다. <콩나물> 영화에서 보리가 시장에서 사려던 제사 음식이 고사리나 시금치가 아니고 으찌 콩나물이었는지. 난 또 이게 왜 궁금했던 걸까? ㅎㅎ 답은 역시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선 그대로다.

“보리가 들고 오기에도 가볍고 주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재료로 콩나물이 제격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참 좋아하시는 게 보인다, 영화마다 아이와 어른,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냐는 질문에 감독님은 입꼬리가 귀에 걸리며 투명한 웃음을 짓는다.

“예리한 질문이셔요. 그땐 단편영화 만드는 일에 급급해서 사실 관객의 통찰, 실체도 염두에 두지 못했어요. <우리들> 영화를 준비하면서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며, 주체인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학교 선생님을 만나보니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너무 없다는 걸 알게 되어 놀랐고요.”

어린이 친구들 얘기를 할 때마다 시종일관 얼굴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못하겠다. 영화를 찍으며 만들었다는 촬영수칙만 봐도 어린이 친구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하는지 알 듯하다. 촬영신마다 달라지는 봉숭아물 손톱 표를 직접 그려서 가져온 연출부 막내 이야기, 시나리오를 보여주지 않고 즉흥극으로 어린이 배우들과 촬영한 영화 이야기, 포기하려던 순간 영화감독이 된 계기, 독립영화와 페미니즘 견해, 현재 재정 상태까지 다양한 질문에 친구처럼 대화에 참여해주셨다.

긴 시간 해맑은 웃음과 손벽을 치며 좋아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 듯 마음으로 얘기 나눠주신 감독님이 좋아 죽긋다. 아, 이 양다리 어쩔~□□

[우리집 촬영수칙]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 하는 성인 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

0. <우리집>의 현장은 어린이와 성인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배

려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합니다. ... 항상 어린이 배우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

,

8. 어린이들은 항상 성인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어린이들의 멋진 거울이 되어주세요. 존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꼭 찾아서 전문을 다 읽어보길 권한다. 영화보기도 당근 필수. 윤가은 감독님을 초대한 '함께크는여성울림'과 진행 맡아주신 김화숙님께 감사한 마음 한가득이다.

윤가은 감독과의 대화

김화숙

울림 씨네 페미니즘 영화 토론 2강, '윤가은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줌 화면에 맞게 현수막을 내 책상 뒤에 설치하고 질문지를 만들고 감독님에 관해 자료를 공부하는 게 내가 하는 준비였다.

소탈하고 전문가연 하지 않는 분이라 편한 분위기로 갈 수 있었다. 살아있는 영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볼 영화 목록도 건졌다. 윤가은 감독을 친구로 얻은 기분, 소통하고 연대하는 느낌 좋았다. 이후에도 아는 척하며 말 걸 수 있을 게 기대된다.

활발히 질문하는 참여자들이 있어 두 시간이 더 알차고 충만한 시간이었다. 난 아무래도 이런 모임 진행을 즐기는 것 같다. 진행 수고했다며, "후기 글은 질문지로 대신하고 쉬라."는 창아샘. 그의 격려에 힘입어 질문지를 올린다.

윤가은 감독과의 대화 질문지_ 울림 씨네 페미니즘 영화토론 2강

1. 우선 첫 번 질문은 감독님의 기분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아니고, 조그만 여성단체입니다. 몇 분 여성감독님들께 제안했는데 윤가

은 감독님만 수락하셨어요. 씨네 페미니즘, 여성 감독과 대화. 이런 초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궁금해요. 오늘 줌으로 마주하신 기분은 어떠신지. 감독님 인사해 주시죠.

2. 영화감독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를 아주 많이 보고 중학교 때 감독 꿈을 꾸셨다고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기, 공부 과정, 어려움과 즐거움을 듣고 싶어요. 저희도 자녀 키우는 부모들인데, 부모님은 어떻게 딸을 키우고 지지하셨나 궁금해요.

3. 감독님은 처음부터 독립영화를 만들어야지 하셨나요? 단편 <손님> <콩나물>도, 장편 <우리들> <우리집>도 독립영화로 만드셨습니다. 저희가 2주 전 씨네 페미니즘 1강으로 토론한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도 독립영화였어요. 관객으로서 독립영화를 보면, 이건 뭐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독립영화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게 모든 독립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의 꿈이 아닐까..."

독립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독립영화란' 간략한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감독님을 '한국의 고레에다 히로카즈'라고들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영화를 보고 '아! 저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충격을 받으셨다는데요. 저는 최근에야 <아무도 모른다>를 처음 봤습니다. 감독님 영화와 비교하며 생각하며 보게 되더라구요. 감독님께 이 영화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란 무엇인지 더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그려내고 아이들과 작업하시는 데 정말 탁월하시잖아요. 아역 배우들과 촬영 원칙을 만들고 지키며 하셨고요. 다른 영화 감독님들이 아이들 촬영 때 윤가은 감독님의 도움을 받는다는데요. 아이들과 촬영 수칙을 정하고 문서화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6. 2016년 영화《우리들》로 상을 아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확히 몇 개인지 세어보셨나요? 받으신 상 중에 가장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상은 무엇입니까? 감독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들>의 가장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요?

7. 2019년《우리집》을 발표하셨습니다. 후속작을 어떻게 그렇게 바로 발표하실 수 있었는지요? <우리들>의 선이와 <우리집>의 하나의 모델이 있었는지, 캐릭터 개발 과정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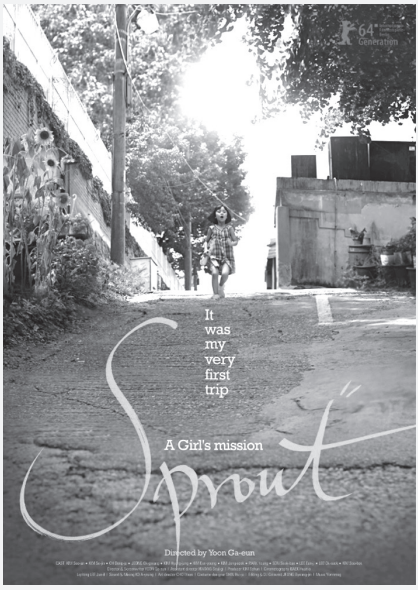
8. 감독님의 차기작이 궁금합니다. 여성 서사의 여성영화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9. 감독님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요? 감독으로서 인정하는 영화와 여성 관객으로서 좋아하는 영화 각 한 편씩 추천해 주십시오.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10. 가장 최근에 본 인상적인 영화, 강추하고 싶은 영화와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11. <우리들>에서 주인공 이선의 손톱이 자꾸 보이는데요. 지아와 같이 손톱에 물들인 복숭아와 혼자 보라가 빌려준 매니큐어를 그 위에 덧칠하는 것. 그리고 벗겨지기 시작한 매니큐어와 다 벗겨진 뒤 이선의 손톱 끝에 남아 있는 봉숭아가 물 들여 있던 손톱. 그리고 지아도 선이도 손톱을 물어뜯는데.... . 손톱으로 무언가를 이야기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독님의 의도가 있는 장면들인지요?

12. <우리집>에서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돌봄노동을 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첫 장면은 싸우는 부모님한테 아침 먹자고 합니다. 결말에서도 밥상을 차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밥 먹자. 얼른~ 든든하게 먹고 진짜 여행 준비하자."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공을 들이셨을 거 같은데요. 이런 결정하신 뜻을 말씀해 주세요.



콩나물

Sprout, 2013

감독 윤가은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19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넉 점 반 아기와 막걸리 랄라~ 1탄

이은미

아기가 아기가 가겟집에 가서
“영감님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넉 점 반이다.”
그림책들에게 ‘넉 점 반’을 읽어준다. 옛날엔 집에 시계가 없어 점빵(슈퍼)에서 시간을 알아 오곤 했다. 그림책 속 아기는 엄마 심부름으로 점빵에서 네시 반이라고 듣고 넉 점 반을 부르며 집으로 향한다. 집에 오는 길은 온통 놀잇감이니 순탄치 않다. 아기는 개미랑 놀고, 잠자리랑 놀고, 분꽃과 놀다가 집에 도착하니 해가 꼴딱 넘어간 저녁이 된다. 그림책들에게 ‘넉 점 반’을 읽어주다가 아홉 살 때 막걸리 심부름하던 내 추억도 들려준다.

“모내기 철이면 시골 갈미는 무척 바빠. 이른 시간부터 엄마는 부엌에서 새참을 준비하시지. 그러고선 커다란 다라이에 음식을 담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가. 막걸리 한 주전자는 내 몫이야. 난 노란 주전자를 들고서 엄마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가지. 낑낑거리며 논둑길을 걸어가. 논둑길에 빨간 고무다라이가 보이면, 저 멀리서 모를 심던 동네 어른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제히 허리를 펴셔. 그 모습이 꼭 논바닥에 사람이 심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은 개구리가 논에서 팔딱 뛰는 속도보다 막걸리 들이키는 소리가 더 빠른 거 알아?”

“야야~ 막걸리 모자른다잉, 점빵서 막걸리 받아오니라.”
논에서 벌레랑 놀던 난 빈 주전자를 들고 점빵으로 갔어.
“아줌마, 막걸리 가득요. 선홍떡 외상 달아놓으세요.”

“내 머리통만한 주전자를 들고 더위를 피해 작은 산길을 걸었지. 날이 억수로 더웠어. 노란 주전자도 벌써 땀을 송골송골 흘리더라고. 주전자를 바닥에 놓고 한 모금 들이키니 아이스깨끼 마냥 시원해. 조금 걷다 또 한 모금 꿀꺽. 캬아! 더워서 또 한 모금 꿀꺽. 좋다! 풀벌레들이 들꽃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니 나도 넉 점 반 그림책 아기처럼 같이 놀다가 또 한 모금 꿀꺽. 니나노! 무겁던 주전자는 어느새 가벼워졌어. 꾸벅꾸벅 꽃들이 눈꺼풀을 잡아당기는지 점점 처지는 거야. 비틀비틀 걷다가 풀밭에 철퍼덕 누워 주전자를 끌어안았지. 온통 푸른 하늘과 초록산이 다 내 거였어. 캬아,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겠지?

한참 뒤 엄마는 산길에서 빈 주전자를 끌어안고 얼굴이 벌겋게 취해서 잠든 나를 발견하고 깨우셨어. 엄마헌티 징허게 혼꾸녕 났지만, 난 막걸리에 취해서 실실 웃으며 꼬부랑말을 했대. 아홉 살 딸이 부르는 노래가 산길에 막걸리처럼 구수하게 퍼져서 꾸짖던 엄마도 한참 웃으셨대. 에헤라디야~ 니나노~“

다시 그림책을 펼쳐 들고 읽는다.
“어두워져 집에 도착한 아기가 씩씩하게 뭐랬는줄 알아?”
“엄마 시방 넉 점 반이래.”
그림책들이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는다.

“또 재미난 옛날얘기 들려줘.”
“음...그럼 아기랑 나처럼 멀리 시장에 콩나물 사러 가던 보리 영화 이야기 해줄게. <우리집>영화 감독이 만들었어.”
“우와~ 보리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간 거야? 안 무서웠대?”

“혼자서 처음 가 보는 곳이니 왜 안 무서웠겠어. 가는 길에 무시무시한 일이 엄청 많았어. 낯선 아저씨들도 만나고, 커다란 개도 만나고, 공사 중이라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얼른얼른 <콩나물>영화 이야기 들려줘.”

“미안, 나 약속 있어. 모험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해줄게.”

“빨랑 와서 재미난 콩나물 이야기 들려줘야 해!”

그림책들이 <콩나물>영화 이야기가 궁금해서 아우성친다.

보리와 콩나물 모험 2탄

이은미

“그림책들아, 오래 기다렸지? 콩나물 이야기 들려줄게.”
“목 빼고 기다렸잖아. 보리가 혼자 시장에 갔어?”
“으응. 보리는 일곱 살 여자아이야. 혼자서는 한 번도 그 먼 시장까지 가본 적이 없었지.”
“그런데 혼자서 시장에 왜 가게 된 거야?”
그림책들에게 <콩나물> 영화 속 보리이야기를 들려준다.

“할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이야. 어른들이 모여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 엄마는 깜박하고 할아버지가 생전 좋아하셨던 콩나물을 안 산 거야. 보리는 그 얘기를 듣고 어른들 몰래 콩나물을 사 오겠다고 마음먹어. 용돈을 챙겨서 콩나물을 사러 길을 떠난 거지.”
“혼자서? 난 낯선 곳은 무섭던데... 괜찮을까?”
여기저기서 그림책들이 나도 나도 하며 걱정을 한다.

“지금부터 보리의모험이 시작되니까 귀 쫑긋~!”
“아~ 긴장된다. 일곱 살 여자아이가 혼자 떠나는 모험.”
“보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골목을 걷다가 동네 아줌마를 만나. 과자도 하나 얻고, 골목을 다시 걸어가는데 그만 공사 중이어서 갈 수 없으니 되돌아가라는 거야. 고민하다가 다른 길로 갔어. 그런데 보리만 한 커다란 개가 딱 길을 막고 서있으니 얼마나 무서워.”

“아이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겠네.”
“아니. 보리는 개에게 간식을 멀리 던져주며 지혜롭게 그 길을 지나와. 신이 나서 슈퍼에 가서 콩나물 파냐고 물었지. 여기선 안 판다며 멀리 시장에 있는 야채 가게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돼. 그때 트럭에서 콩나물 판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리가 기뻐서 뛰어갔어.”
“우와, 보리가 트럭에서 콩나물을 샀겠네.”
“그게 말이야. 트럭으로 가던 골목에서 바닥에 떨어진 빨래를 주워주고 가보니 트럭이 사라지고 없었어.”
“아이참, 그냥 가지. 왜 빨래를 줍고….”
그림책들은 보리가 콩나물을 사길 바라는 마음에 안타까워 한숨을 쉰다.

“보리는 택배 아저씨가 시장에 데려다준다는 걸 재치 있게 도망쳐. 따라갈까 봐 얼마 두근거렸는지 몰라. 휴!”
“다행이다. 그래서? 보리는 이제 시장에 도착했어?”
“아니.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났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재미있게 놀았지. 넉 점 반 아기처럼 말이야. 동네 언니랑 싸우기도 하고, 할머니를 따라가서 할머니를 돕기도 하고, 골목에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며 노래도 부르고, 해바라기의 아름다움을 담으며 쉬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지."
“넉 점 반 아기처럼 해가 저물어서 콩나물 산거야?”
“으음... 어두워질 무렵 무사히 시장에 도착하긴 했지.”
우와~ 보리 멋지다. 그림책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

“콩나물 사서 집에 갔으니 엄마가 기뻐하셨겠다. 그렇지?”
“그게. 그게…. 보리가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야채 가게 아줌마가 뭐 줄까? 물으니 그저 히힛! 웃기만 하더라고. 보리가 시장에 오는 동안 까먹은 거지. 그 모습이 젤 인상 깊이 남아. 참말 멋진 웃음이었어.”

“아~ 보리가 혼자서 씩씩하게 모험 잘했는데...”
그림책들은 보리가 자랑스럽다면서도 탄식을 한다.

“보리가 무사히 집에 돌아갔어?”
“응. 콩나물 대신 할아버지가 좋아한 해바라기를 들고서.”
“얘기 듣는데 보리가 위험에 처할까 봐 엄청 두려웠어. 요즘 세상이 흉수로 험하잖아. 이상한 사람도 많고 말이야.”
“그치? 나도 영화 보면서 두근두근 떨리기도 했어. 여자아이 혼자 저렇게 헤매다가 낯선 사람에게 잡혀가면 어쩌나, 개한테 물리면 어쩌나, 길을 잃으면 어쩌나….”
“그러게. 남자아이였다면 또 다르게 보이긴 했겠다. 걱정도 좀 덜 되고 말이야.”
“영화 이야기 어땠어?”
“난 보리가 콩나물을 못 샀어도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 용감하게 모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엄청 멋져. 넉 점 반 아기처럼 시장에 도달하는 과정이 자랑스러워.”
그림책들이 보리의 모험이 멋지다며 환호를 보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리가 모험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야.”
“우리 사회는 여자아이가 헤매고 돌아다니면 불안하고 위험하잖아. ‘위험하니 돌아다니면 안 돼!’가 아니라 여자아이도 ‘어디든 모험을 떠날 수 있어야 해!’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래. 불안이 여자아이의 모험을 멈추게 하지 않고, 어디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회.”
콩나물을 까먹고선 히힛 웃던 씩씩한 보리 모습이 떠올라 나도 환하게 웃는다. 씨익 ▢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Bombshell, 2019

감독 제이 로치
장르 드라마
국가 미국, 캐나다
러닝타임 109분

성인지 체크 점수 +12

누가 지켜보는가?

김화숙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은 2016년 미국의 대표 보수 언론 폭스 뉴스를 한방에 무너뜨린 성추행 폭탄선언을 다룬 실화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 추문 폭로와 미투(MeToo) 운동으로 이어진, 세상을 바꾼 여성들의 이야기다.

1) "누가 무엇을 보는가?" 묻는 영화라 하겠다.

앵커 메긴이 폭스 뉴스의 건물 안을 다니며 안내하는 장면은 암시와 은유로 가득하다. 언뜻 보면 건물 내외와 구조, 그리고 각 층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같다. 폭스의 사장 로저가 얼마나 거물인지,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등, 화면 변화가 빠르다. 수많은 모니터 앞에 리모컨을 든 로저가 클로즈업 되면, 결정적인 멘트가 나온다.

"로저는 언제나 보고 있죠."

그의 눈이 잠시라도 안 지켜보면 배가 기울듯 뉴스가 좌측으로 기운단다. 그는 보고 지시하는 권력이다. "앵커의 치마를 더 짧게 하라, 화장을 더 해라, 바지를 입지 마라, 진행자의 다리를 더 부각해라…." 자막의 오타를 잡아내고는 직통전화에 대고 소리 지른다. "야 이 머저리들아! 이건 글렌 프레이가 아니라

돈 헨리잖아!”

언제나 보고 있는 눈, 폭스 사장 로저의 눈은 모든 직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그 눈이 보고 싶은 걸 화면에 띄우라. 그러면 그가 누군가를 좋은 자리에 꽂아 준다. 충성심을 보이라, 어떻게 충성심을 보여줄지는 알아서 판단하라, 그 눈이 요구한다.

폭스의 여성들은 로저 앞에 불려가고 희롱당하고 착취당한다. 사장실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며 몸매를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줘야 한다. 다리를, 벗은 몸을 그 눈이 보게 해야 한다. 여자가 성공하려면, ‘힘센 자의 앞섶을 빨라’는 원칙이 있었다. 그 눈 밖에 나는 자,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여주는 건 아니었다. 그레천 칼슨은 사장의 눈을 거절했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건 성차별과 성희롱과 인사 불이익이었다. 그레천은 그 모든 걸 낱낱이 기록했고 녹음했다. 로저를 고소했고 그를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2)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화는 또 다른 보는 눈을 비춰준다. 아이들의 눈망울이다. 간판 앵커 메긴과 그레천은 엄마들이다. 그들은 욕을 먹었고 차별을 당했고 희롱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은 참지 않고 목소리를 냈고, 잘렸고, 싸워야 했다.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었다.

어느 엄마가 자신이 겪은 치욕을 딸이 겪도록 하고 싶을까? 자신이 겪은 치욕을 덮을 경우, 딸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레천은 그 점에서 단호했다. 딸 카야의 응시하는 눈을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

대사 없는 장면, 눈망울이 말한다.

“엄마, 내가 지켜보고 있어. 엄마는 잘 싸우고 있는 거야. 엄마 힘내!” 아이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다.

3) 못 본 듯 눈 감는 사람들도 있었다.

로저를 눈감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편을 비호하는 로저의 아내, 그의 채홍사 같은 여자 비서, 그리고 로저의 손발이 되어 묵인하는 부사장들, 그리고 로저 티셔츠를 입고 싸우는 직원들까지.

권력은 결코 혼자 유지되지 않는다. 곁에서 떠받들고 유지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줬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보았지만 못 본다는 것. 보아도 못 본 것처럼 눈을 감는다는 점이었다.

두 눈 부릅뜨고 보자. 그리고 무섭게 질문하자. 누구 눈을 의식하느냐고.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Fox뉴스를 ‘조선일보’로 바꾼다면

심용선

영화 <밤쉘>에서 주인공 그래천이 폭스뉴스 사장 로저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다. 영화토론을 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꼴통 언론인 폭스뉴스를 우리나라로 본다면 조선일보에 비길 수 있다고.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방씨를 상대로?라고 상상해본다면, 미투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 <밤쉘>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다.

극단적 보수 정체성(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 및 혐오, 소수자혐오 등)을 가진 대기업 언론사인 폭스사 사장, 로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충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그 충성이 성착취로 연결된다. 더 짧은 치마를 입어라, 바지를 입지마라, 카메라는 다리를 비춰야한다…. 계속되는 성적 대상화로 소비되는 여성 앵커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사장 로저에게 성폭력, 성희롱을 당하게 된다.

그래천도 그런 앵커 중의 하나였으나 어느 순간 거절을 시작했고 로저와 대치하게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녀는 로저를 상대로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간판 앵커인 매긴이 로저를 고소함으로써 피해여성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로

저는 싸움에서 지게 된다.

내부 고발자가 조직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직은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전투력을 장착하고 있다. 어제까지 피해자의 동료였던 자들도 조직의 일원으로 흡수되거나 매수된다. 피해자였던 고발자는 어느새 가해자가 된 자신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천은 1년여 동안 이 싸움을 준비했다. 폭스사가 아닌 개인 로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문제를 간결하고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로저의 더러운 입놀림을 녹음했다. 증거는 필수이니까. 그러나 로저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보다.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기는커녕 로저를 칭송하는 내부의 목소리만 드높았다. 그러다가 앵커 매긴이 로저를 고소하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로저와 한 마음이 되어 그래천을 공격했던 보수유력인사들은 매긴이 로저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했다. 배신. 그들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기른 예쁜 강아지가 감히 주인을 문 것이다.

로저 같은 놈이 한국에는 또 얼마나 많을까. 폭스뉴스의 로저를 보면서 조선일보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방씨는 여전히 건재하다. 미투가 소위 민주진영에서 터지면서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기소가 되었다. 가장 큰 세력인 언론계에도 로저 같은 놈이 득실득실할 텐데, 그놈들한테 크게 한방 먹이는 일이 조만간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당갈

Dangal, 2016

감독 니테시 티와리
장르 드라마
국가 인도
러닝타임 161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영화토론 <당갈>

어정은

영화 <당갈>은 2010년 영연방 경기대회에서 인도 최초로 금메달(55kg급)과 은메달(51kg급)을 획득한 여성 레슬러 기타 포갓과 바비타 포갓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성들은 부엌일 배우는 것을 당연시 하던 시절에 아버지 마하비르 싱 포갓은 두 딸들을 레슬러로 만들고 그녀들은 인도여성 최초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라는 신화를 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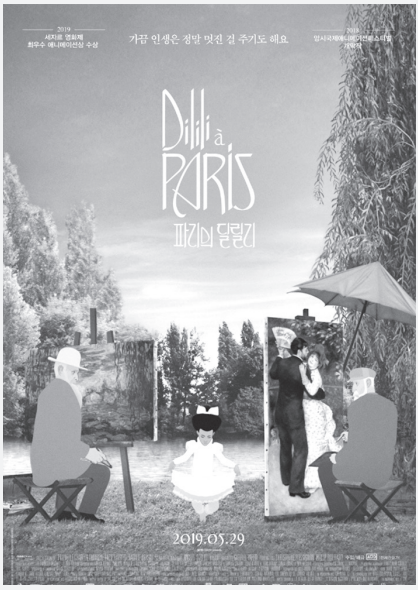
<당갈>은 인도 영화 특유의 노래와 춤도 적절하게 곁들여져서 시종 유쾌하다. 언니 기타 포갓의 레슬링 시합은 손에 땀을 쥘 정도로 긴박함이 넘치고 흥미진진하다. 가장 좋은 점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이 영화의 내용이 실화라는 것이었다. 2시간 40분의 긴 영화였음에도 지루하지 않았고 마지막은 통쾌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에 높은 평점을 줬다. 토론하기 전까지는.

영화토론 중에 누군가가 말했다. 이 영화는 여성영화인척하는 가부장영화라고. 그 이유는 레슬러를 만들고자하였으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딸은 그 대용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욕망과 서사는 있으나 딸들은 그저 아버지의 말대로 했을 뿐이고 그녀들 자신의 목소리는 없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불편했지만 그냥 스쳐지나갔던 것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영화를 여성영화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가부장 사회에서 미쳤다는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딸들을 레슬러로 성공시킨 것은 물론 대단한 일이다. 아버지는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내아이처럼 훈련받는 두 딸을 데려갈 남자가 없을까봐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딸들은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아버지, 결승전에서 딸에게 너는 호주 선수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라고 말하는 아버지, 외에도 수많은 장벽과 아버지는 싸운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여성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노력하는 두 딸들을 응원하게 된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던 것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조국에 대한 말과 여성문제들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결승전을 앞두고 “너는 호주 선수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야”라고 아버지가 말하자 딸 기타는 뭔가 굳게 다짐하는 얼굴이 되는 장면이 있다. 클로즈업 되는 기타 얼굴을 보면서, 관객은 깊은 감명을 받아야한다고 영화는 말한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 참으로 당위적인 말을 당위적으로 하는 구나. 공허하게 들렸다.

토론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말만 있다는 것. 그 당위성을 딸의 시선으로, 그녀의 입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딸들이 직접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떤 싸움을 해왔고 하고 싶은지를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딸들이 직접 겪은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가 도와주는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여성영화인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세계관과 틀에 잘 맞추어진 두 딸이 존재하는 것이다. 위대한 아버지의 영화였다. 각본을 쓴 감독과 제작자이자 주연인 아미르칸이 어떤 의도로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본 결론은 그렇다. 그래서 영화토론 후 나의 평점은 많이 낮아졌다. 영화토론이 그렇게나 중요하다.



파리의 딜릴리

Dilili in Paris, Dilili à Paris, 2018

감독 미셸 오슬로
장르 애니메이션
국가 프랑스 외
러닝타임 94분

성인지 체크 점수 +13

영상미, 음악의 아름다움, 숨은 그림 찾기의 묘미

조창아

<파리의 딜릴리>는 미셸 오슬로 감독의 애니메이션이다.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1914년)까지를 일컫는 '벨 에포크(아름다운·좋은 시절)' 시대가 배경이다. 프랑스가 사회, 경제, 기술, 정치적 발전으로 번성했던 시대이며 현대의 유럽인이 회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 한다.

<파리의 딜릴리>는 딜릴리와 오렐, 두 인물이 끌고 간다. 딜릴리는 카나키라는 뉴칼레도니아섬에서 온 소녀이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호기심 천국 캐릭터이자 줄넘기를 잘하고 프랑스어가 유창하다. 누구도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는 무척 사랑스러운 아이다. 동시에 정의구현에 앞장서는 용기파 인물이다. 딜릴리는 파리의 모든 사람을 궁금해한다. 늘 수첩을 휴대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기록한다. 그 기록 덕에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풀리기도 한다. 카나키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줄넘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틈만 나면 줄넘기로 화려한 개인기를 뽐낸다. 줄넘기는 실제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오렐은 딜릴리와 우정은 물론 고난을 함께하는 프랑스인이다. 딜릴리에게 먼저 다가갈 정도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정의감도 갖고 있어 딜릴리와 함께 파리 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아 연쇄 유괴 사건을 해결한다. 오렐은 배달부라는 직업의 특성 덕분에 명사를 태우거나 중요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며 딜릴리에게 명사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래, 춤 등 팔색조 미남이다. 딜릴리와 오렐이 주체가 되고 어른들 즉 화가, 작가, 군인 등의 명사들이 그 둘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벨 에포크 시대의 예술가들이 카메오로 등장하여 딜릴리와 오렐과 대화하거나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협력한다. 예컨대 화가 로트레크, 가수 엠마 칼베, 작곡가 에릭 사티, 과학자 마리 퀴리 등 전방위적인 분야의 명사들 말이다. 벨 에포크 시대의 인물 박물관이라 할 만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등장이 서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서 밀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명사들의 궤적을 좇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롭다. 덕분에 그림 보는 재미, 음악 듣는 재미도 톡톡하다. 하지만 실제 인물들은 실제라는 한계 때문에 평면적으로 등장하며, 아쉬운 점이다.

프랑스의 찬란한 시대의 어두운 여아 유괴 사건을 엮고, 카나키인을 구경거리로 삼은 인간 동물원과 자칭 문명의 도시 파리, 카나키 소녀와 파리 시민, 마스터맨이라는 여아 유괴조직과 파리의 인텔리들 등의 대비되는 소재와 유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 화려한 영상미, 유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점 등으로 이 영화의 재미가 꽉 채워져 있다.

엠마 칼베가 '자유를 얻고 싶으면 아이들도 노력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과 딜릴리가 '잊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 깊다. 죽음의 고통을 겪고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딜릴리의 말은 뭉클했다. 딜릴리의 대범함은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울 것이다.
딜릴리가 남기는 어록이 아주 많다. 찾아보는 재미, 느껴보세요.^^

파리의 딜릴리

신현경

인생이라는 강은 단번에 건널 수 없듯이 사귐도 그랬고 영화와 만남도 그랬다.

애니메이션 영화 <파리의 딜릴리>는 두 번을 보았는데도 다시 보고 싶어진다. 통통 튀고 종횡무진하는 여자 아이 딜릴리와 남자 청년 오렐의 활약상이 신나고 재미있었다. 두 명의 주인공은 파리에서 발생하는 여자아이 실종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활약을 펼친다. 영화 토론 중에 어떤 샘은 프랑스어에 매력을 느낀다고 했지! 나 역시 동감했다. 노래도 아름다웠다.

영화에는 수많은 유명 인물들이 나온다. 프랑스의 벨에포크 시대라는 문화의 전성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유명인물이 많았다. 나는 알폰스 무하의 포스터가 인상적이었다. 그밖에도 루이제 미셸이라는 사회주의운동가 얘기도 나왔다. 작품을 찾아보고 싶었다. 프리다 칼로, 까미유 클로델, 엠마 칼베, 수잔 발라동, 마리퀴리 등 멋진 여성들이 등장해서 내 눈을 즐겁게 했다. 로트렉과의 짧은 만남도 좋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파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그 아름다운 파리를 다녀왔다는 혜정샘이 무지하게 부러웠다. 이 영화의 감독, 미셸 오셀로의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도 봐야겠다.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된다.

벨 에포크,
누구에게 좋은 시대인가

김화숙

1. 영화 <파리의 딜릴리>는 흑인 소녀 딜릴리가 끌어가는 영화다.

7세 정도 돼 보이는 딜릴리와 10대 백인 소년 오렐이 친구가 된다. 두 사람은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사회적 지위 등,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격의 없이 대화가 통하고, 그 시대 활동한 수많은 예술가들과도 스스럼없이 만나 친구가 된다.

딜릴리는 흑인과 백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다. 고향인 뉴칼레도니아에서는 너무 '희다'던 피부가 파리에서는 너무 '검다'는 소릴 듣는다. 인권운동가 루이즈 미셸을 만나 파리로 오게 된 딜릴리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 친구 오렐은 요즘 식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청소년 알바쯤 되겠다.

두 사람을 친구로 묶어준 건 사회적 '소수자'라는 공통점뿐이었다. 그들이 수레와 자전거가 달리면 당대의 '대단한' 인물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두려움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 이름 부르는 친구 될 수 있는 세상. 과연 벨 에포크였다.

2. 벨 에포크, 누구에게나 좋은 시대였을까?

<파리의 딜릴리>에는 벨 에포크 시대 활동했던 예술가와 학자들이 76명이나 등장한다. 영화에 등장한 당대 실존 인물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감상을 조금씩만 들어 보자.

박 : 영화 보기 좀 전에『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까미유 끌로델이 로댕의 제자인데 섬세한 묘사는 다 까미유 끌로델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지옥문도 섬세한 묘사는 다 그녀가 했을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 : 마리 퀴리, 엠마 칼베, 루이즈 미셸, 사라 베르나르. 그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다시 주목하게 하는 감독의 배려가 좋았어요. 루이제 미셸은 굉장한 페미니스트였어서 그 사람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으면 했어요.

조 : 로트레크라는 화가를 주목했어요. 그 사람의 그림이 좋았어요. 드가의 칭찬을 받고 좋아하는 장면을 보면서 드가와의 관계가 궁금했어요.

정 : 저도 로트레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림도 유명하지만 장애인이라 놀림당하고 소외돼서 물랭루주에 가서 무용수와 매춘부 그림을 그리고 포스터를 그리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는 물랭루주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그곳에서도 쫓겨났다고 해요. 영화에서 딜릴리와 오렐과 함께 친구처럼 다니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죠.

김 : 콜레트요. 남편의 이름으로 소설을 썼다가 본인의 이름을 찾아간 멋진 여성이에요. 저도 영화<콜레트> 재미있게 봤어요.

심 : 에릭 사티가 그노시엔을 피아노로 연주할 때 어떤 흑인이 춤을 추는데 그 흑인한테 로트레크가 '쇼콜라'라고 불렀어요. 진짜 이름이 쇼콜라인 건지, 까맣다고 초콜릿이라는 비하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 저는 까미유 끌로델인데요, 잠깐 나와서 아쉬웠어요. 제가 중. 고등학교

때 그녀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동경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어요. 인상 깊게 남은 인물이었습니다.

정 : 아까 언급되었던 '쇼콜라'가 실제로 벨 에포크 시대 활동했던 유명한 광대였다고 합니다.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예술과 문화가 꽃 피던 그 시절, '벨 에포크' 누구에게 좋은 시대였을까? 영화는 소수자인 딜릴리와 오렐을 통해 시대의 이면인 지하세계의 어두움을 드러내 보여주고 만다.

거기엔 여자를 '네 발'이라 부르는 '마스터맨'들이 있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게 마땅하다는 사람들이었다. 여자들이 납치당하고 감금되고 폭행당했다. 남자들만이 '정상' 인간인 시대는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

마스터맨 범죄 조직에 대해 경찰도 국가도 부패하고 무능하다. 영화는 여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엠마 칼베, 마리 퀴리, 루이즈 미셸, 사라 베르나르, 네 여성이 힘을 합쳐 감금된 여자들을 해방한다. 아이들을 부모 품에 돌려보내고, 여자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니게 한다. 그 과정에 소년과 소녀, 남성 여성, 모두 하나가 된다.

3. 모두에게 좋은 벨 에포크를 꿈꾸자.

역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좋은 시대는 없었다. 영화는 벨 에포크 시대를 소환하여 이면을 들추고 불편한 지점을 보여준다. 진짜 좋은 시대 맞냐고 질문한다. 좋은 세상을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영화다. 여자와 아이와 '소수자'들에게도 좋은 시대를 꿈꾸게 한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함께 꿈꾸자고 제안하는 영화다. <파리의 딜릴리>는 그래서 좋은 영화다.

영화토론, 못다 한 이야기

어정은

영화<파리의 딜릴리>에 대한 영화토론은 백번쯤 해야 하지 않을까? 토론 끝나고 생각했다.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께끼처럼 영화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찾기 퍼즐을 맞추려면 토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오늘의 못 다한 이야기 하나, 드레퓌스 사건과 관련한 중령 이야기이다. 여자아이들을 유괴하여 네발로 걷게 하는 악당들, '마스터맨'을 소탕하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여성들이 힘을 모은다. 루이즈 미셸, 사라 베르나르, 엠마 칼베, 마리 퀴리. 이 여성들은 썩은 경찰 조직을 대신하여 군대의 힘을 빌리기로 한다. 그러나 당시 군대는 드레퓌스 사건으로 보여졌듯이 철저히 부패하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러니까 '쇼비니즘' 그 자체였다.

당시 프랑스 연극의 군인 이름 '쇼뱅'을 따서 '쇼비니즘'이 창시되었다고 한다.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국수주의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당시 보불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민중의 분노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고 유대인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가둔다. 반유대주의 정서를 이용한 쇼비니즘이었다.

드레퓌스 사건에서 소신 있게 행동했던 중령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4명의 여성들은 그 중령의 힘을 빌려 마스터맨을 소탕해야겠다고 결론을 내고 대통령과 친한 사라 베르나르가 힘을 쓰기로 한다. 영화의 끝 장면에서는 엠마 칼베가 등장해서, 중령에 의해 마스터맨이 소탕되고 잡혀갔던 여성들이 구출되었다고 말한다.

나는 이 중령이 매우 궁금하다. 누구인가. 어떻게 상명하복의 썩은 군대 내에서 소신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 상관인 폭력적인 장군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매력적인 인물이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 이 이름 없는 중령이 참으로 궁금하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 구출한 여성 중에 여전히 '네발'을 고집하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엠마 칼베는 그들에게 자신의 성 일부를 제공해서 아름다운 공간에 머무르게 했다고 한다. 해방이 되어도 구속이 편한 여성들이 있다. 그들에게 '바보멍청이'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 좋았다.

툴리

Tully, 2018

감독 제이슨 라이트만
장르 드라마
국가 미국
러닝타임 95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20대 툴리는 답을 줄 수 있을까

권성혜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내가 꿈꾸던 것이 이게 아니라 더 근사하고 멋진 일이어야 한다고. 늘 부족하고 없는 것에 집중했다.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긍정과 즐거움이지 괴로움이나 버티고 쥐어짜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화 툴리는 그걸 내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다.

마를로가 꿈꾸던 30대 40대가 어떤 모습이었든 지금은 두 아이가 있고,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다. 둘째는 조금 특이한 아이다. 다른 아이보다 엄마의 주의와 관심이 더 필요한 아이다.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지만 그게 그녀가 겪는 육아와 임신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으로 겪는 문제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녀는 그저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 한다. 셋째 출산 앞두고 그녀에게 오빠는 선물로 야간 보모를 권한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오빠 부부는 야간보모로 출산과 육아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한다. 밤에 수유하지 않고 푹 잘 수 있고 육아로 생기는 집안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출산 전처럼 사람 관계와 생활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빠가 선물로 지원한 야간 보모가 왔다. 야간 보모의 이름은 툴리. 마

를로의 생활 전체를 돌본다. “당신을 돌보러 왔어요. 전체를 치료하지 않고 부분만 고칠 수 없어요.”라며 생활 일부를 돌보는 야간 보모가 아니라 아이 엄마의 삶까지 총체적으로 돌본다.

툴리의 도움으로 집안일도, 음식도, 자신을 위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자신을 돌볼 여유로 머리도 다듬고, 깔끔하게 입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챙기고, 집 안도 정리한다. 남편과 친근한 접촉도 할 만큼 에너지가 오른다. 툴리는 밤 외출을 하자고 부추기어서 예전 살던 동네에 가서 20대의 어느 날처럼 밤새워 논다. 돌아와야 할 시간에 툴리가 이제는 떠나야 한단다. 떠난다는 얘기를 위해 시내로 왔다며. 마를로는 툴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예전에 꿈꾸던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

툴리는 ‘단조로움’, 일상의 단조로움이 마를로가 젊었을 때 꿈꾸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툴리는 말한다. 우리의 세포는 분열 재생되고 없어지기를 반복한다고.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삶도 예전과 같을 수도 같을 필요가 없다고. 삶은 단조롭고 심심하지만 별 탈 없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마를로는 이제 스스로 돌보면서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 아이들 자라는 걸 지켜보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을까? 툴리, 20대의 그녀가 마를로 혼자 견디는 힘든 삶의 답을 줄 수 있을까?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많은 여자들이 절망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내 생활 리듬과 전혀 관계없이 깨고, 울고, 먹고, 잔다. 잠도 부족한데 아이를 안아주어야 하고, 늘어난 집안일로 손목은 늘 시큰거린다. 내 옷 어디에나 젖비린내가 났다. 가끔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는 악을 쓰며 운다. 내가 딱 죽고 싶게 힘든 순간에도 돈 버는 남편은 밤에 주무시게 해야 한단다. 주변에서는 아이를 낳았으니 모성도 저절로 장착되고, 모성은 이 모든 것이 즐거움이 되

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기는 무조건 어느 순간도 사랑스러워야 한단다. 아는 사람 없는 낯선 도시에서의 내 육아는 노을이 예쁜 날이면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로 이어졌다. 아이 없이 하루만 푹 자 봤으면,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징징댈 수 있다면, 아이는 예쁘지만 자주 날 미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그 미칠 것 같았던 시절, 20대의 내가 내게 어떤 말을 해 줄까.

내게도 툴리가 필요했다

조창아

영화 <툴리>는 말로와 툴리 두 여자의 이야기다. 말로는 산전후우울증과 과로로 지쳐 있고, 그를 도와주는 야간 보모가 툴리다. 영화 앞의 15분에서 애들 낳고 키울 때가 떠올라 영화를 꺼 버렸다는 언니도 있지만, 답답한 흐름의 영화가 아니다.

1. 말로(샤를리즈 테론)

말로는 위트 있는 인물이다. 책임감이 강한 말로는 독박육아와 살림에 찌들어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 배우의 눈빛이 다한다. 말로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두 아이에게 시달림을 당하지만, 평소에 아이들에게 농담하는 장면을 보면 결혼 전에 매우 자유로운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행동 장애가 있는 둘째 조나가 자신의 몸을 솔로 긁어주는 엄마에게 "이거 진짜 도움 돼?"하고 묻는 장면이 있다. 말로는 답한다. "솔직히 나도 몰라." 부족한 게 많지만,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영화 <보이후드>에서 엄마가 대학에 입학하는 주인공에게 말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2. 툴리(맥켄지 데이비스)

툴리는 말로를 돕기 위한 야간 보모로 고용된다. “저는 엄마를 돌봐 드리러 왔어요.” 아기를 돌보러 왔다고 해야 할 보모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어리둥절하게 된다. 툴리는 덧붙여 말한다. 아기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온 것이라고. 전체를 치료하지 않고 부분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툴리는 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 신비로운 인물이다. 매우 자유분방하여 말로를 자주 당황케 한다. 툴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그 순간에 충실 하라며 말로를 격려한다. “모든 지리함, 반복되는 일상이 다 소중해요.” 말로는 내게 반복되는 일상에 찌든 나머지 놓치지 쉬운 가치를 잃지 말라고 말해 주는 것 같다.

3. 말로와 툴리

말로가 수유하는 장면이 있다. 깊은 밤의 고독한 수유. 툴리가 바로 앞에서 그 모습을 다정하게 지켜봐 준다. 아기에게 수유하는 시기의 엄마는 아기가 사랑스럽다는 걸 깨달을 새도 없이 그저 졸리기만 한 동물이다. 그 시간에 남편이 봐 줬다면, 함께 이야기라도 나눠줬다면…. 그런데 남편은 혼자 텔레비전 게임을 하다가 잠들어 버린다. 말로는 툴리가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 생기를 되찾는다. 둘은 와인도 마시고, 아기가 잠든 뒤 젊은 시절의 말로가 자주 가던 클럽에 동행하며 함께 일탈한다. 툴리는 말로가 엄마로서 스스로 엄격하려고 하는 공고한 틀을 깨도록 자극한다.

툴리가 그러한 말로에게 더 이상 자신이 오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한다. 말로는 그 말을 받아들인다. 이제 말로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각자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 장면에서 묘하게도 말로만이 아니라 툴리를 응원하게 된다. 툴리가 말로 곁에 있어 주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4. 내 곁에 툴리가 있었다면

모든 친숙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스물넷에 아이를 낳았다. 친한 친구들은 나름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각자 힘겨울 때였다. 그런 친구들에게 두 시간이 넘는 안산에 와 달라고 할 수 없었다. 아기 백일잔치 즈음에 남편이 미루고 회피하던 군에 입대했다. 똑똑한 채 혼자 다하던 내가 시부모 슬하에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기죽어 있다가 대들었다가, 잘못 투성이 행동만 일삼았다.

답답해 미치겠는 날이면 집밖에 나가 엄마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곤 했다. 육아일기장만이 유일한 벗이자 출구였다. 빨래를 널러 5층 옥상에 올라간 어느 날 아래를 보며 뛰어내릴까 하는 순간의 유혹에 빠질 번하기도 했다. 산후우울증이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고, 내가 택한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니 참고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멀리 계신 엄마께는 걱정하시니 말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스물둘에 결혼해 남편이 술이 과했던 탓에 독박 육아를 하셨다 하니,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그때 나한테도 툴리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

산후우울증 없는 엄마가 있을까. 엄마 혼자서 육아의 전선에서 몸과 마음이 부서지도록 방치하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바란다.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

힘든 지대를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어정은

영화<툴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 잔잔한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로가 물결처럼 점점 퍼져나가더니 언제가 잃어버렸던 무엇인가를 소환시켰다. 영혼의 등불에 대한 믿음. 나는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며 내면 깊숙이 빛나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다. 세월의 가르침 이전부터 그냥 알고 있었다. 영화<툴리>를 보고, 툴리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나는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잃어버린 지도 몰랐던 것들…. 묘한 기분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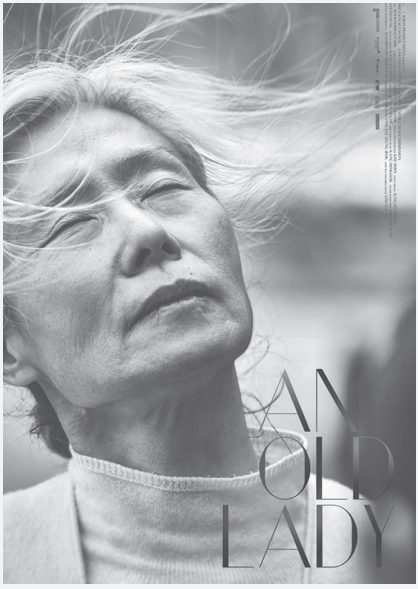
아이 둘을 힘들게 키우고 있는 마를로는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 첫째 딸은 아직 신발도 찾아 줘야하는 아이고, 둘째인 아들은 행동장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를 출산하고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괴로워하던 마를로는 오빠의 도움으로 야간보모를 두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툴리. 툴리가 온 후 마를로는 생활에 활기를 띄기 시작한다. 마를로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겠다고 말하는 툴리. 툴리에게 의존하던 마를로는 슬픔에 잠겨 음주운전을 하다 강에 빠진다. 입원한 마를로. 걱정하는 남편에게 의사가 다가와서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마를로의 처녀 때 성이 툴리라는 것도 밝혀진다.

“위험지대를 건너도록 곁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병실에 누워있는 마를로에게 나타난 툴리가 작별을 고하면서 한 말이다. 마를로는 이제 툴리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의지하며,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 것이다. 위험지대를 헤맬 때 곁에 있어준 툴리 덕분에.

젊은 툴리가 말한다. “살게 해 줘서 고마워요.”
나이 든 툴리가 말한다. “나도요.(고마워요, 살게 해 줘서.)”

둘째 아이가 제적통보를 받던 날 마를로는 참았던 화가 폭발한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 혼자 화를 낸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녀를 잠식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녀의 내면에서 빛났던 젊은 툴리가 도와주러 왔다. 심연을 헤엄치는 인어가 되어. 젊은 툴리는, 나이든 툴리가 자신을 찾도록 도와준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보다 현재 갖고 있는 시시한 것의 중요함을 말해준다. 어린 툴리가 오랫동안 소망했던 것이라고. 과거와 현재가 서로 거울이 되어 보여준다.

임신, 출산, 육아의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심오할 일인가 싶다. 영화를 두 번 보면서 이중삼중의 메세지가 깔려 있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나의 돌봄 노동으로 인한 하중이 이 영화에 대한 몰입을 더 강하게 했나보다. 나이든 툴리처럼 일상의 책임감에 과도하게 메여있는 느낌이다. 나에게도 젊은 툴리가 있었다. 그 빛나는 등불을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무시해온 시간이 길다. 어찌나 투덜댔는지 등불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비슷한 결을 가진 여성 누구나의 그런 고민들을 심도 있게 녹여낸 영화에 감사한다.



69세

An Old Lady, 2019

감독 임선애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100분

성인지 체크 점수 +13

69세

류정희

효정아,
글쎄 이런 일이 있었데. 여자가 다리 수술을 받고 깁스한 붕대를 어찌하려고 남자 간호조무사를 따라갔는데, 글쎄 그 돼질 놈이 여자한테 미친 짓을 했다잖아. 그래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지. 그게 여자가 쉰여덟이고, 간호사가 서른 둘이어서 경찰들이 어물쩡어물쩡 하는 새 되레 여자가 간호사를 꼬셨다, 이런 소문까지 났다나. 여자가 몇 번을 고소해도 그놈을 안 쳐 넣더래. 결국 그 노인네가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렸어. 그제야 경찰들이 부랴부랴 우라질 그놈을 쇠고랑 채웠어. 근데 그 높으신 양반들이 그놈을 고작 5년형을 때렸다지. 그 여자 유서에 '내가 젊은 여자였다면 가해자가 구속됐을 거'라고 그랬대.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5년형이라니. 그 판사들도 한통속이야.

효정아, 벼락 맞아 돼질 그 물리치료사.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감방 갈 거야. 기다려보자. 경찰 양반은 뭐래? 증거 가지고 오라지. 개 쓰레기 같은 놈, 답답해서 욕 밖에 안 나오네. 동인 그 양반은 뭐래? 왜 하필 그 일요일 사람 없는 날 물리치료 갔냐고 안 해? 우라질. 아픈데, 병원문 열렸으면 가는 거지. 왜 하필 일요일 가서 그 꼴 당했냐고, 그런 빌어먹을 말, 입에서 꺼내기만 해 봐, 내가 그냥 그 주둥아리를 비틀어 버릴 거니까.

천벌 받을 그놈이 그 병원 친절 담당 간호사라더만. 형사가 친절이 과했다고 농을 치네. 아주 터진 입이라고. 썩어질 그놈, 스물아홉이라며. 효정이 널 치매 환자로 몰더라. 너랑 아는 사이고 마트에서도 몇 번 마주쳐서 대화도 하고 그랬다고. 합의했는데, 치매라 왔다 갔다 해서 증거고 뭐고 치료나 받아야 한다네. 효정아, 마음 단디 먹어. 동인 그 양반도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더라.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어째서 우리 보고 조심 좀 하지 그럴까. 싸다구를 날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내일이면 70, 70이나 살았는데 우리 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는 거야. 평생을 나보다 남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 불편할 거 더 챙기고 눈치보고 이때껏 살았는데, 지랄 뭘 더 조심하라고. 나쁜 놈 그놈들한테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냐고 안 하고. 어째 우리 보고 조심했어야지 그러냐고. 세상 꼴이.

나는 아직,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 언제 뭘 결정하고 내 하자는 대로 하는 걸 해 봤어야지. 물어보고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옆에서 하라는 대로 했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무섭고. 겁도 나고. 소문이 나를 칭칭 감아 오르면, 더 어떻게 입을 열겠어.

효정아, 네가 불쾌할 수도 있다는 그 말. 불편이 아니라, 네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며 바람결에 날린 너의 목소리. 그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내. 고마워. 옆에 같이 있을게.

영화<69세>

심용선

오늘의 결론. 영화만 보고 감상평을 쓰면 안 된다. 영화토론까지 하고서 감상평을 써야한다. 영화평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69세>가 특히 그랬다. 영화를 두 번이나 보고도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여성 노인이 어떤 법적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토론을 하면서 내가 사건 중심으로만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토론자들이 인간 심효정(주인공)에게 이입되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의 상담소 활동 경험이 오히려 영화 감상을 방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 것이다.

69세의 심효정은 29세 간호조무사에게 치료실에서 강간을 당한다. 밤에 일어난 그 사건의 목격자는 당연히 없다. 그녀는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동거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한다.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교라 주장하고 심효정을 치매로 몰아간다. 법원에서는 젊은 남자가 늙은 여자를 강간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다. 가해자의 '치매' 주장은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다. 안 그래도 깜박깜박하는 나이에 가해자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증인은 신분노출을 거부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녀를 주시해왔기 때문에 그녀와 친분이 있다는 거짓말을 엮어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안중에도 기억에도 없는 인물이다. 가해자의 치매전

략은 잘 먹혀서 사건은 어렵게 되어간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사건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정액 묻은 옷이 국과수에 넘겨졌는데 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가. 손목의 상처는 중요한 증거인데 왜 감상적으로만 처리되는가. 영장기각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가, 기소여부와는 크게 상관도 없는데. 상해는 전혀 얘기도 없었는데 강간치상은 또 뭔가. 마지막에 그녀가 고발문을 써서 삐라처럼 날리는 것은 자폭인데 뭐하자는…. 아주 그냥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었다.

영화토론을 하면서 든 내 생각은, 그냥 그런 인간 심효정이 있는 거다. 타인한테 민폐 끼치는 것을 두드러기처럼 싫어하는 깔끔하고 내성적인 그녀. 혼자 사는 여자라면 거시기부터 들이대는 발정 난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옷차림 하나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녀. 숱하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인 수영을 열심히 하는 그녀. 억울하다고 발악은 못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조근조근 말하는 그녀. 봄빛에는 눈물도 찬란하다는 시를 외우며 그 빛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녀. 그런 여자 인간 노인이다. 인간 심효정은.

그래. 사건이 좀 비뚤어지면 어떠냐.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빛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에는 눈물이 빛나는 봄빛이 아니고 햇빛으로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영화토론 후 달라진 내 감상평이다. 오늘도 영화토론이 옳았다.

비커밍 아스트리드

Becoming Astrid, Unga Astrid, 2018

감독 페르닐레 피셔르 크리스텐센
장르 드라마
국가 스웨덴, 덴마크
러닝타임 123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씨네 페미니즘 <비커밍 아스트리드> 토론 후에

김화숙

울림 씨네페미니즘 영화토론 진행을 모두 마쳤다. 마지막 8강 <비커밍 아스트리드>는 제주 여행 중 접속이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노멀, '전국구' 온라인 모임이 됐다.

씨네페미니즘 토론은 행복한 배움의 대장정이었다. 그동안 함께 하며 통찰을 나눠준 씨네페미 벗들에게, 내게 진행의 기회와 '실력 발휘' 기회를 준 씨네페미니즘 만세다! 시간 관계상 모든 감동을 글로 남기지 못해 아쉽다. 린드그렌의 전기 한 단락을 인용한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2002년 1월 28일 오전 10시 바사스탄의 자택 침대에서 영면했다. 그 곁에는 간호사 두 명과 의사, 그리고 카린이 있었다. 그날 스톡홀름의 남녀노소가 달라가탄 46번지로 몰려와 문 앞에 꽃을 내려놓고 촛불을 밝혔다. 그날 밤에는 텔레비전 특별 방송이 편성됐고, 이튿날 스칸디나비아와 독일 신문들은 린드그렌의 삶을 조명하는 부고를 실었다. 스웨덴의 주요 신문들은 린드그렌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여왕이나 고위 정치인에게 어울릴 법한 장례식이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거행되었다. 페미니스트와 그 자손들, 스웨덴 총리,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국왕 가족, 그리고 십만 명이 넘는 스웨덴 시민들이 스톡홀름 구시가지의 오래된 교회 스토르쉬르칸으

로 향하는 운구 행렬을 따라 거리를 메웠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날인가. 얼마나 경이로운 삶인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전기,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옌스 안데르센, 창비, 2020) 458쪽

영화<비커밍 아스트리드>

어정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말괄량이 삐삐(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의 작가로 스웨덴 출신이다. 어렸을 때 신나게 봤던 동화 작가에 대한 영화라니, 기대가 컸다. 그런데 나이든 유부남 편집장을 사랑하고, 원치 않는 10대 임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간통으로 고소되고, 법적으로 미혼모 보호가 되는 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미혼모를 위한 위탁시설이 있던 덴마크의 위탁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기다렸던 삐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실망이었다. 모성을 강조하는 영화인가? 대충 그렇게 생각한 게 첫 번째 영화감상이었다.

화숙샘의 논제를 보고 아스트리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기인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도 읽었다. 아스트리드는 엄청난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웠던 사회 활동가였고 특히 '그토록 작고 외로운'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위대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작고 외로운 범주에는 아이들 뿐 만 아니라, 학대 받는 동물, 훼손되는 환경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진 그의 품은 넓고 넓었다.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감독의 깊은 뜻이 너무나 잘 보였다. 돈 버는 게 목적인 감독이었다면 삐삐롱 스타킹을 포스터 전면에 세우고 화려한 성공담으로 영

화를 도배질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입소문을 내고 영화는 아마도 크게 흥행했겠지. 다행이 이 영화는 스웨덴 여성 감독이 만들었고 아스트리드를 대중에게 선보이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핵심을 아는 사람이었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게 영화에서 보일 때마다 나는 울컥했다.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라는 약자 중의 약자가 더 작고 외로운 생명체인 아들 '라세'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녀만의 싸움에서 부르짖는 말들, 그 작고 작은 아이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세를 1년이나 떼어놓고, 그 애한테는 나밖에 없어요. 그녀는 오로지 절대 약자인 라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 세월은 이후 그녀가 한 수많은 생명 살리기 활동, 환경운동을 하게 했고 그녀의 역경을 지탱해준 힘의 원천이 된다. 그것을 잘 알았던 페르닐레 피셰르감독에게 감사하다.

비커밍 아스트리드

곽미경

<말괄량이 삐삐> 작가로 유명한 아스트리드의 자전적 영화이다. 그래서 삐삐가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중심으로 한 성공담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영화가 삼분의 이가 진행되도록 그녀는 작가가 되지 않는다. 10대에 미혼모가 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영화의 대부분이다.

이 영화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관객이 뭘 기대하든 상관없이 그녀가 가장 성장한 시기는 미혼모로 살아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때라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것. 유명한 작가의 특별한 이야기를 보기위해 접근한 사람(예컨대 나)은 실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알게 된다. 이 시기는 아스트리드가 비커밍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에바가 붉은 장미를 만났을 때

심용선

영화<비커밍 아스트리드>에서 한 여성변호사의 이름이 나왔다. 에바 안덴(1886~1970). 영화 내에서는 아스트리드가 신분 노출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로 잠깐 언급된다. 당시는 1920년대다. 우리나라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조선총독부가 잠깐 문화정책을 폈던 시기이다. 조선에는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 몇몇 여성들은 바다 건너 들려오는 여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에 열광했다. 에바 안덴과 같은 여성운동가들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 해방을 현실화하고 있을 때 지구의 반대편에 살던 조선의 여성들은 식민지하의 가부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었다.

에바 안덴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았다. 그중 눈에 띈 것이 그녀의 절친들이었다. 최초의 여성 의사, 최초의 스웨덴 여성 노벨수상자 등 수많은 유명인이 그녀의 친한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두 열혈 여성운동가였다. 이렇게 부러울 수가. 더 놀라운 것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1872~1952)도 그녀의 친구였다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의 붉은 장미라고 불리는 그녀가 어떻게 스웨덴의 에바 안덴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간단했다. 콜론타이는 최초의 스웨덴 여성대사였다. 1923년부터 스웨덴 공사로 부임했다.(사실상 추방. 레닌의 독재에 저항 함)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레닌과 어깨를 겨룬 러시아 혁명가,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평등을 위해 싸운 여성, 여성에게만 가중된 돌봄, 육아 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서 실현시킨 것, 여성노동조합 결성으로 여성인권과 복리후생을 추진시킨 것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업적을 남긴 혁명가이자 여성운동가로 알려져 있을까? 아니다. 콜론타이는 극단적 자유연애 주창자로서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되고 있다. 남성과 똑같이 여성도 꼴리면 한다는 것은 당시 볼셰비키 혁명가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레닌도 그녀를 비판했다.

조선의 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가들은 콜론타이를 사랑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그녀가 말하는 여성 해방에 동의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여성 해방'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허정숙, 정칠성, 정종명, 주세죽 등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가들은 진정한 여성 해방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여성교육의 목적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그들은 개량민족주의계열의 여성해방 교육이 또다시 현모양처로 귀결됨을 비난했다. 21세기 오늘날, 진정한 여성해방이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주창했던 바로 그 의미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은 식민지 남성들도 일제도 싫어했다. 개량민족주의 계열이 점차 친일로 변질되어 갈 때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은 여성해방(계급해방과 동일시)과 독립이라는 화두로 싸웠다. 대부분이 죽거나 월북을 했다. 그리고 허정숙을 빼고는 거의 모두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했다.

에바 아덴과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여성과 아동의 인권운동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치면서 살았다. 물론 콜론타이는 스탈린과 적대적이어서 활동의 제약을 받았지만. 그런 멋진 여성들이 인권운동을 하며 찬란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더랬다. 조선의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피흘리고 감옥가고 죽어가는(남쪽에서는 이승만에게, 북쪽에서는 김일성에게) 시간 동안. 악랄한

일제에 이은 친일 독재로 남쪽에서는 다시 현모양처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여성 삶의 최종 목적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모양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에바가 붉은 장미를 만났을 때를 상상하면 가슴 벅차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가서 보고 싶다. 그리고 같은 여건이었다면 못지않게 활약하며 살았을 조선의 여성들이 가슴 아프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시대의 조선여성들에게 위로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위 왓치 유

Caught in the Net, V síti, 2020

감독 바르보라 찰루포바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체코
러닝타임 104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영화<위 왓치 유>

어정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12살로 분장한 여배우 3명은 평범한 집처럼 꾸민 3개의 세트장에서 지내게 된다. 각각의 배우들은 페이크 계정을 만드는데, 개설과 동시에 전 세계 남성들이 접속을 해온다.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진들이 배우들을 직접 오디션해서 뽑고 어떻게 남성들을 응대할 것인지 사전교육을 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남성들이 성기를 들이대고 성적 요구를 해오고 협박을 일삼는 일이 발생하자 배우들도 제작진들도 경악하게 된다.

관객들은 이 상황이 설정된 것이고 피해자가 성인인 것을 알고 유사시 제작진들이 섭외한 전문가들이 대응할 것임을 알고 있다.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놀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실제 12살이라면? 너무나 끔찍하다. 소녀들의 호기심과 순진함을 이용하여 성적욕구를 해소하려는 그들은 집요하고 추잡하고 폭력적이다. 협박에 못 이겨 신체사진을 보여주면 그것을 캡쳐해서 더 심한 요구를 하고 더 심한 협박을 한다.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비열하다. 그 가해자 중에는 청소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작진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놈은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소녀의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말을 번번하게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많이 들어왔고 뉴스에서도 여러번 다루어져서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얼다큐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다. 출연한 배우가 실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자살할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막다른 골목게임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쁘띠마망

Petite Maman, 2021

감독 셀린 시아마
장르 드라마
국가 프랑스
러닝타임 72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나이를 초월하는 동반자

유미경

씨네페미니즘 모임에서 <쁘띠 마망>을 봤다. 근래에 영화관을 간 일이 없어 무척 설레는 발걸음이었다. 집하고 가까운 평촌에서 보기로 했기에 시간 부담 없이 출발했는데, 출근시간과 겹쳐 길이 많이 막혔다. 막히는 길을 피한다고, 네비가 알려주는 길을 버리고 내 짐작대로 길을 들어섰는데 도착시간이 자꾸만 지연되었다. 마음은 급해지고 지인께 전화를 해서 표를 맡기고 입장하기를 부탁했다. 다행히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어 처음부터 볼 수 있었다. 처음부터 보아도 내용 파악이 쉽지는 않았다.

영화는 주인공 넬리가 할머니와 공부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했다. 넬리의 할머니인가 본데 참 고우시네. 나도 저런 할머니로 늙어 가면 좋겠다. 손녀와 할머니의 이야기인가 했는데, 고운 할머니의 방에서 나온 넬리는 여러 방을 찾아 방주인인 듯한 할머니들과 인사를 하고 엄마가 짐정 리를 하고 있는 방에 도착한다. 아 넬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는 엄마와 아빠가 다른 차를 타고 할머니의 집을 찾아간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시골집에 가는 길인데,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탄 넬리는 뒷좌석에서 자신이 먹던 과자를 엄마 입에 넣어주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제목과 연관해서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던 참에 슬픔에 빠진 엄마는 하룻밤을 지내고 넬리와 남편에게 짐정리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아빠와 남게 된 넬리. 넬리는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였던 숲 속에 찾아간다. 엄마에게 얘기 들었던 오두막집을 찾기 위해. 아무도 없는 숲에서 오두막을 짓고 있는 엄마와 같은 이름의 마리옹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는 넬리. 동갑인 둘은 모습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 금세 친해진다. 마리옹은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던 불안감을 넬리에게 털어놓고, 넬리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울해하는 엄마를 걱정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건넨다. 친해진 마리옹은 넬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데 할머니 집과 같다. 할머니의 유품인 지팡이까지 있는 마리옹네 집. 넬리는 두 사람 사이의 믿을 수 없는 비밀을 깨닫게 되고, “나 비밀이 있어. 내 비밀이면서, 네 비밀이기도 해.”라고 하며 마리옹에게 알린다. 엄마의 어린 시절인 마리옹을 현재의 넬리가 만나는구나.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구나. 영화의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지루함이 밀려왔다.

자신의 슬픔에 빠져 넬리를 놓고 떠나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엄마, 넬리의 보이시한 옷차림과 걸음걸이.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숲속 에 겁도 없이 찾아가는 넬리는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뭐 이렇게 영화가 재미없어. 이런 영화를 왜 보자고 했지? 감독은 어떤 의도로 이런 영화를 만든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몰려오는 잠을 쫓아내며 뭔가 긴장감 넘치는 게 있겠지 할 즈음 영화는 끝났다.

영화관람 후 여덟 명이 브런치를 먹으며 토론을 시작했다. 저마다 감상이 달랐지만 썩 재밌게 보지는 않았다는 평이 이어졌다. 평점도 낮게 주어졌다. 각자 주목한 포인트들이 달랐고 왜 눈길이 갔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를 감독한 셀린 시아마에 조예가 깊은 한 분이 영화 속의 복선, 감독의 의도, 표현 방법 등을 설명했다. 셀린 시아마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감독으로 주목받는데, 여성성과 남성성을 벗어나 인간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감독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영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토론 후의 평점도 달라졌다. 영화를 보는 내내 넬리 곁을 떠났던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 넬리를 맞이하는 엄마. 마리옹을 만나고 성장한 넬리가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 더욱 인상 깊게 떠올랐다. 나이를 초월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마주하는 명장면이었던 것이다.

아는 만큼 새롭게 다가왔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재미없고 지루했던 영화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의 관점이 내 것이 되어 내 경험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지루함을 견뎠을 때 오는 잔잔한 감동

신은향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이 배경인 쁘띠마망은 이미지로, 소리로 남는 영화다. 영화를 다 보고난 후 눈앞에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나뭇잎 소리, 바람소리, 넬리와 마리옹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잔잔하게 오래도록 남을 영화다.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할머니를 떠나보낸 넬리. 엄마와 함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 간 시골집에 머무른다. 평소 우울감이 있던 엄마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 하지만 영화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할머니가 머물렀던 요양원에서 숲을 바라보는 엄마의 뒷모습과 침대에 누워 있는 마리옹의 엄마(넬리의 할머니) 뒷모습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넬리는 어린 시절 엄마가 만들었다는 나무집에 대해 관심이 많다. 숲에서 혼자 놀던 넬리는 또래 마리옹을 만나게 되고 둘만의 비밀을 알게 된다. 마리옹의 집에 갔을 때 할머니 집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8살 마리옹이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비밀을 털어놓자 마리옹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네가 내 안에 있음을 느껴.”라고 말한다. 넬리는 마리옹과 함께 나무집을 지으며 논다. 나무집은 엄마의 어린 시절 중 넬리가 제일 궁금해 했던 공간이기도 하다. 나

무로 얼기설기 모아서 만든 집에 단풍이 든 나뭇가지를 꽂자 그 공간은 둘의 이야기를 품은 환상적인 공간이 된다.

마리옹은 수술을 앞두고 있고, 넬리는 엄마의 생일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둘은 함께 숲속에서 맘껏 뛰어 놀고 고무보트를 서로 들고 호수로 향한다. 이 때 신나고 활기찬 음악이 영화를 주도한다. 둘은 서로 노를 저으며 호수 중간에 하얀 피라미드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영화를 보면서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려는가 싶었지만 둘은 그 안에 있는 둥근 공간으로 들어간다. 푸른빛이 나는 공간은 물빛을 받아 신비로워 보였다. 그곳에 잠시 멈춰 있던 둘은 노를 저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마치 엄마의 자궁에서 머물다 나온 듯 했다. 둘은 가볍게 작별 인사를 하고 넬리는 다시 자기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넬리는 숲에서 쁘띠마망(어린엄마)을 만남으로 현재 엄마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72분의 짧은 상영시간과 제한된 공간, 밋밋한 전개, 넬리와 똑같이 생긴 마리옹 그리고 느린 카메라 기법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넬리가 같은 나이인 8살의 엄마 마리옹을 만난다는 설정과 엄마가 어렸을 때 만들었다는 나무집을 함께 함께 만드는 과정, 비밀을 공유함으로 치유해 가는 과정들이 인상적이었다.

전개가 빠르고 극적인 상업영화는 영화를 볼 때 몰입감을 주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빠르게 잊히고 만다. 하지만 전개가 느리고 내용 파악도 쉽지 않은 예술 영화는 보는 내내 지루함을 견뎌내야 하는 고통을 주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오랜 시간 마음에 남아서 파동을 일으킨다. 쁘띠마망처럼 말이다.

심심(深深)하고 아름다운 영화, <쁘띠 마망>

심용선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은 장면 전환이 빠르다. 그 긴박함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그래서 롱테이크(장면 전환이 느린 것) 기법의 영화를 찍는 감독은 보통 배짱이 아닌 거다. 영화<톰보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감독 셀린 시아마의 최신작 <쁘띠 마망>이 그렇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기에 장면이 저토록 긴 것인가.

주인공 '넬리'는 8살 여자아이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엄마 '마리옹'과 시골집으로 내려온다. 엄마는 자주 우울해하는 사람인데, 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니 슬픔이 깊어진다. 넬리는 엄마가 걱정이 된다. 넬리도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기에 자신의 슬픔도 크다. 그런 넬리에게 또래의 친구가 나타나고 그 아이와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된다.

나는 영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판타지에 대한 것도, 비슷한 장면을 반복하며 장면전환이 느린 것도 왜 그래야하는 지. 아름답지만 지루했다. 같이 관람한 8명이 브런치를 먹으며 영화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토론이 끝날 때쯤 내 생각은 완전 뒤집어졌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만든 다른 영화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어른의 불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얼마나 깊은 유대감으로 바라보는지, 어른보다 더 성숙하게 그러나 조용히 기다려 주는지 알게 해준 영화들.

영화는 넬리의 시선으로 엄마의 슬픔에 공감하고, 할머니와의 이별을 어떻게 마무리 해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름다운 가을 숲과 바람소리, 두 아이의 깔깔거림, 호수 위를 노저어가는 아이들의 의연함, 서로의 눈을 보며 알게 되는 상처받은 마음. 그 잔잔하고 긴 장면들은 그들을 내면 깊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넬리와 엄마는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토론자들이 이 중요한 장면의 의미를 알려줬다. 내가 놓친 것. 아이와 아이가 상처를 보듬고 드디어 깊은 이해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역시 셀린 시아마다. 그녀의 <쁘띠 마망>은 매우 깊고 아름다운, 그래서 심심(深深)하고 아름다운 영화이다.

코다

CODA, 2021

감독 션 헤이더
장르 드라마
국가 미국
러닝타임 112분

성인지 체크 점수 +13

너는 너를 아는 사람 <코다>

김화숙

영화 <코다 CODA>(Children Of Deaf Adult, 청각장애인의 자녀)는 눈물과 웃음, 재미와 의미에 깊이와 넓이를 갖춘 영화였다. 안산 개봉관에서 딸과 함께 한 번, 서울에서 씨네페미팀과 또 한 번 보았다. 서울 신사동까지 버스와 전철 왕복 4시간에 영화와 토론까지, 8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영화였다. 벌써 또 보고 싶다.

1. 자기를 알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름답다.

우리 딸은 오른쪽 귀가 난청이다. 딸의 난청을 통해 우리 가족들은 청각 장애와 수어에 관심 갖게 되었다. 딸이 혹시 한쪽 귀마저 청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들을 수 있음이 고맙고 소중하고, 자기로 살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난청은 딸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이었다. 학기 초마다 교실에서 좌석 배치, 길을 걸을 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듣기 등등. 나는 딸과 외출할 땐 늘 딸의 왼쪽에서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장애란, 극복의 대상이기보단, 끼고 살아야 하는 작은 '문제'이자 소통의 창구 같은 게 됐다.

나는 청인 부모의 자식이고 건청이지만 코다에 완전 감정이입하며 봤다. 코다

루비(에밀리아 존스)에게서 경계인들의 고민을 보았기 때문이리라. 특히 남성 중심 사회 속에 여성을 보았다. 역설적이게도 코다 루비에게 농인 부모의 장애란, 이 불통의 가부장적 시스템에 비해 얼마나 소통 가능하고 유연한 존재인지. 눈물 나게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였다.

루비는 어려서부터 농인 부모와 오빠의 입과 귀가 되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조였다. 자기 삶과 가족생활이 분리되기 어려웠다. 루비에겐 등교보다도, 수업 시간에 자더라도, 가족들의 '귀와 입'이 되는 역할이 먼저였다. 루비가 노래를 하고 음악학교로 가고 싶어 했을 때, 비로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다.

"너는 너를 아는 사람이라서 나는 좋아."

루비가 집을 떠나 음악학교에 진학한다는 건, 루비에게도 가족 전체에게도 새로운 문제가 시작됨을 의미했다. 딸을 떠나보내는 정서적인 분리, 가족이 겪을 불편과 혼란, 새로운 대안 마련, 경제적인 난관 등등. 엄마는 아직 이런 상황에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루비 역시 가 본 적 없었지만 가고 싶은 길이었다. 딸의 뜻을 확인하고 엄마는 말했다. 딸이 엄마와는 달라서 좋다고. 자신을 알고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딸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인가, 가족이 원하는 역할, 익숙한 구조에 머무를 것인가? <코다>는 자기를 알고 자기 길을 가는 용기였다.

2. 여성 감독 션 헤이더의 시선이 아름답다.

<코다>는 단지 장애인 영화가 아니다. 여성 감독에 의한 여성 영화, 또는 휴먼

드라마라 말하고 싶다. 그동안 영화에서 본 장애인의 모습은 '장애인'으로 호명되고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라. 그러나 <코다>의 농인 부부와 그 아들의 삶은 '온전한' 인간으로 입체성을 띠었다. '문제' 혹은 '어려움'은 비장애인들도 다 가진 것. 문제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어려움과 함께 삶은 계속되는 것이었다.

농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비춘 영화였다. 그들이 가장 멋있는 캐릭터로 나왔다. 수화를 보이려니 카메라는 늘 그들의 정면을 잡아야 했다. 아니라 중년의 농인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친밀하게 사는 모습, 루비의 남자 친구와 루비의 관계, 아름다웠다. 매력적인 음악 선생님을 백인이 아닌 멕시코 출신인 점 역시 영화의 다양성 균형을 잡아준 포인트였다.

영화 제작노트에서 감독 션 헤이더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현장에서 디렉팅은 당연히 수어를 사용했지만 배우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신호나 팬터마임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액션'이나 '컷'이라고 외칠 수 없어서 우리만의 신호를 만들 필요가 있었죠. 배 위에서 저는 조타실 바닥에 누워 농인 배우인 트로이 코처에게 다시 연기해달라는 말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대신에 그의 발을 붙잡기도 했어요.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 저에게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틀을 깨버렸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수어를 배우고… 감독으로서 지금까지 겪지 못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3. 농인 배우들의 모습도 연기도 아름답다

농인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 영화로 처음 알았다. '헐리우드의 사각지대'라는 말도 이해하게 됐다. 장애인 영화 자체가 귀한데 장애인이 연기하는 영화가 얼마나 되겠는가. 목소리로만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보았다. 손으

로 하는 말, 표정과 행동과 삶은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전달력이 좋았다. 연기도 외모도 모두 출중한 배우들, 통역 없이도 나를 울고 웃게 했다.

세 농인 배우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었다. 아빠 역에 트로이 코처, 엄마는 말리 메트린, 그리고 오빠는 다니엘 듀런트. 특히 말리 메트린은 올해 56세인데 1986년 첫 데뷔작인 <작은 신의 아이들>로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였다. 트로이 코처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농인 역할에도 청인 배우를 많이 써왔던 걸로 알아요.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명연기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그들의 수어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감독 션 헤이더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현실적인 캐릭터들을 구성해냈죠."

4. 너는 할 말이 있니?

음악 선생 미스터 V를 통해 영화는 말했다. "세상에 할 말이 없는 예쁜 목소리는 많고 많다. 너는 할 말이 있니?" 그의 질문에 루비는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게 어색한 아이였다. 목소리로 맘껏 노래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루비는 자신을 아는 아이였다. 자기 목소리를 냈고 주변과 소통했다.

코다, 말하고 듣는 것의 아름다움이여. 목소리로만 말하는 건 아니다. 농인이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다. 귀가 있다고 잘 듣는 게 아니고 농인이라고 못 듣는 게 아니었다. 몸짓과 표정과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사람들을 보았다.

영화<코다>

어정은

‘코다’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영화<코다>는 들을 수 없는 세계를 가진 부모, 오빠가 있는 가족의 유일한 청인인 여자아이 루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화숙샘의 추천으로 우리 8명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작은 영화관 ‘이봄 씨어터’를 찾아갔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서울 나들이를 한 것이다. 티켓값은 놀랍게도 1인당 2,000원이었다.

어업이 생업인 집에서 루비는 가족의 귀가 되고 입이 된다. 새벽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같이 하고 물고기 판매를 돕는다. 그리고 학교에 간다. 수업시간에는 퍼져 잔다.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비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노래에 탁월한 실력이 있다. 그 재능을 간파한 음악 선생은 루비에게 버클리 음대를 갈 수 있도록 길을, 미래를 열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유일한 외부 소통 통로인 루비가 없으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기에 그녀는 고민에 빠진다.

언뜻 어두운 영화 같지만 그렇지 않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미장센이 뛰어나다. 주인공 가족이 장애인이면서도 비장애인보다 더 사람 냄새나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을 받을 때, 과연 무엇이 진짜 장애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뭔가 잘

못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전체 분위기가 경쾌하고, 시종 울면서 볼 정도로 감동적이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빨려 들어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없어지는 적막의 광경이 펼쳐지는데 연출의 백미다. 들리지 않는 단절이 어떤 느낌인지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 같아선 왕창 스포를 하고 싶지만 다음에 봐야 할 분들을 위해 말을 아끼고자 한다.

빌리 홀리데이

The United States vs. Billie Holiday, 2021

감독 리 다니엘스
장르 드라마
국가 체코
러닝타임 130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각성과 기억으로 이끄는 홀리데이의 'strange fruit'

김혜정

재즈(Jazz)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아마 흑인, 와인바, 어쩌면 담배나 마약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즈에는 이런 감상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깊고 깊은 흑인들의 피땀이 배인 삶의 역사와 애환이 들어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최근의 재즈영화를 뽑자면 단연 <빌리 홀리데이>가 아닐까 싶다.

무대를 단숨에 사로잡는 강렬한 눈빛의 레이디 데이. 내겐 그녀의 노래는 위로가 아니라 가시덩굴처럼 영혼에 달라붙어 사람을 아프게 하는 무엇이었다. 모두에게 암울했지만 특히나 인종 차별과 억압이 극심했던 30년대의 아메리카에서 그는 당시 무엇이었을까? 아니 무엇이고자 했을까?

시대와 불화하며 너무 일찍 떠나버린 천재들의 삶은 대체로 그 극적인 요소로 인해 늘 우리에게 안타까운 기억을 남긴다. 홀리데이 또한 천재적 재능을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여성으로 시대를 아프게 살다가 너무 일찍 떠나버린 천재적 재즈 가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비운이 단순히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삶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는 서사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그가 스스로 누구인지 알았다는 존재의 무거움에 있지 않을까 싶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축복과 불운을 동시에 안는 숙명적인 것이다. 홀리데이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알았고 흑인으로 그 능력을 펼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알았으리라.

홀리데이의 노래에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각인 되어 있다. 특히 섬뜩한 전율로 다가오는 'strange fruit'은 피억압자에겐 각성과 저항을, 억압자에겐 선동의 나팔소리로 들렸으리라. 이렇듯 누구는 그가 저항의 아이콘이길 바랐을 테고 누구는 그가 노래하는 목소리로만 소비되는 존재이길 바랐을 것이다. 그 속에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 안은 홀리데이는 누구와 그 고단함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었을까?

화려한 무대 위의 삶과 흑백차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 아래의 삶을 극단으로 오가는 일상을 분열 없이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도무지 조화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약물을 불러왔으며 아프게도 그것만이 그의 위안이었을 것이다.

백인 권력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억압자에 불과했던 남편들을 대신해 그녀의 'all of me'였을지도 모를 감시자 '지미 플래쳐'만큼은 진실이었길 염원하며 'strange fruit'이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각성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기억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Southern trees bear strange fruit
남부 나무에는 이상한 열매가 열려요

Blood on the leaves and blood at the root
잎과 뿌리에는 피가 흥건하고

Black bodies swinging in the southern breeze
남부의 따스한 산들바람에 검은 몸뚱아리가 매달린 채 흔들리죠

- 굴종을 모르는 당당한 여성, 홀리데이의 <strange fruit 중>

빌리 홀리데이를 아시나요?

김화숙

개봉 영화 <빌리 홀리데이 Billie Holiday>를 강추합니다!
빌리 홀리데이를 아시나요? 영화가 자꾸 물으니 저는 빌리에 빠져 밤 깊도록 허우적대고 있어요. 글쓰기로 손이 쉽게 옮겨가질 못하겠어요. 빌리의 삶을 추적하고 빌리의 노래를 듣고 앉아있는 거죠. 빌리의 삶에 명예와 고통을 함께 가져다 준 노래 같이 들을까요? FBI의 타깃이 되어 44세에 빌리는 죽었어요.

세계의 민주주의 '형님'이나 되는 줄 착각하는 미국을 어떻게 혼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짓만 그런 가요 어디. 아프리카계 흑인들에게 한 악행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한 짓까지…. 어찌 해야 할까요? 영화는 1930년대, 인종 차별의 무법천지인 미국 사회를 잘 담아냈어요. 특히 남부지역에서 자행된 백인에 의한 흑인 린치(lynch, 집단폭력)를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고발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바로 빌리 홀리데이죠. 아~~ 슬프고 아픈 영화지만 재즈는 너무 좋아요.

1939년 빌리 홀리데이(1915~1959)가 부른 <Strange Fruit 이상한 과일>을 들어 보기로 해요. 나무에 매달린 이상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이 노래는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겠죠. 그만큼 백인들의 불편과 미움의 대상이

고 FBI의 사냥감이 되었어요. 마약을 끊기 어려운 이유였죠.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에는 금지곡이 되었지만 빌리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빌리 홀리데이를 아시나요?

Strange fruit
이상한 열매

Southern trees bear a strange fruit
남부의 나무엔 이상한 열매가 열리지요

Blood on the leaves and blood at the root
잎에도 뿌리에도 온통 피범벅

Black body swinging in the Southern breeze
검은 몸뚱이가 남부의 산들바람에 흔들리죠

Strange fruit hanging from the poplar trees
포플러 나무에 이상한 열매가 열렸답니다

Pastoral scene of the gallant South
용맹의 고장, 남부의 목가적인 풍경 아래

The bulging eyes and the twisted mouth
튀어나온 눈과 비틀어진 입술

Scent of magnolia sweet and fresh
달콤하고 신선한 목련꽃의 냄새와

And the sudden smell of burning flesh
불타버린 살점의 냄새까지

Here is a fruit for the crows to pluck
까마귀가 파먹는 열매가 열렸어요

For the rain to gather, for the wind to suck
비에 맞고 바람에 시달리며

For the sun to rot, for a tree to drop
햇볕에 썩어서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버리는

Here is a strange and bitter crop
참으로 이상하고 씁쓸한 과실이랍니다

빌리 홀리데이

심용선

그녀가 마약에 절어 목소리가 망가진 후
나는 그녀의 노래를
그다지 열심히 듣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자 오히려 그 시대의 레코드를
즐겨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퇴락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녀의 만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어쩌면 그건...
'용서'같은 것이 아닐까.
그녀의 노래를 듣다보면
내가 삶을 통해 또는 글 쓰는 일을 통해
지금까지 저질러온 많은 실수와
상처 입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녀가 두말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젠 그만 됐으니까 잊어버려요.'라고
-『재즈 에세이』 무라카미 하루키

영화를 보고 나서 하도 먹먹해서 그녀, 빌리 홀리데이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이곳저곳 그녀를 찾아 떠돌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발견하고는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다. 그것은 위안이었다. 그녀만큼 진한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영혼의 노래, 용서의 노래, 위로의 노래에 대한 얘기였다. 내가 공감 받고 싶은 그 느낌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하고 있었다. 감사하게도.

빌리 홀리데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창가에서 자랐다. 10살의 그녀는 하녀일을 하던 곳에서 40대 백인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는데 그놈은 무죄로 풀려나고 빌리는 남성을 유혹했다고 감화원으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다. 2년 후 감화원에서 나온 그녀는 또 성폭력을 당하고 사창가에서 일하게 된다. 우연히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을 계기로 그녀는 유명세를 타게 된다. 3번의 결혼과 이혼. 5번의 감옥생활. 그리고 마약.

영화감독에게 감사한 것은 그녀를 노래 잘하는 마약쟁이로만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고통의 와중에 끊임없이 싸우는 투쟁가로 그려냈다. 흑인 린치를 고발하는 노래 'strange fruit'를 불러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신변을 위협당했지만 그녀는 공연 마지막에 늘 그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돈과 몸뚱이를 갈취하는 놈들로 가득했지만 그렇게 신념을 지켜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마약에 무너졌다. 그녀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깊고 어두운 공허는 마약 없이 견딜 수 없게 했다. 4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한 여성에게, 흑인 여성에게 시대가, 사회가, 놈들이 그렇게 가혹할 수가 있는가. 죽음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약이라도 있어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그 지옥 같은 공허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의 영혼이 평안히 쉬길 빈다.

Nobody Knows, 誰も知らない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誰も知らない, 2004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장르 드라마
국가 일본
러닝타임 140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충격적인 이야기를 덤덤하게 보게 만드는 영화.
영화가 끝난 후 덤덤함이 먹먹함으로 남아
잊혀지지 않는 영화.

신은향

영화인문학 모임을 하면서 좋아하게 된 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감독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 영화를 보면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영화가 떠올랐다.

<아무도 모른다> 영화는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 실화를 바탕으로 그렸다. 감독은 사건의 비극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자기들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덤덤하게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간 엄마. 장남 유키라와 교코, 시게루, 막내 유키는 엄마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12살인 아키라는 동생들을 돌보며 최선을 다하지만 봄이 되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키라는 식료품을 사기위해 바깥출입이 허용되지만 교코, 시게루, 막내 유키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집에서만 살고 있다. 베란다도 빨래를 널기 위해 교코만 잠깐 나갈 수 있다. 집에서만 생활하는 거라 답답하고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나름의 시간을 보낸다. 아키라는 동생들을 위해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 유키를 데리고 외출을 한다. 유키는 소풍을 가는 것처럼 들떠 '삑삑' 소리나는 신발을 신고 경쾌하게 나들이를 하기도 한다. 힘든 동

생들을 위해 다 같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는 장면에서는 아이들은 힘든 현실이지만 그것을 잊고 마냥 행복해 한다. 영화에서는 아이들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은 노는 존재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곤 한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영화에서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길에 천막을 치고 사는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 중계를 보려고 안테나를 연결하려고 한다. 어른들은 현실의 고통에 잠식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순간순간 깨어나 놀이를 통해 현실을 잊을 정도로 삶을 즐긴다.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에 감독의 거리두기 장치가 있음에도 나의 감정에 빠져들어 영화를 봤었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아이들이 놀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 이 영화에서 계단이 계속 나온다. 그 계단은 아키라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고달픔, 배고픔, 현실의 벽처럼 느껴지지만 때론 그곳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즐겁게 계단에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함께 하는 공간일 때 그곳은 놀이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놀이는 아이들의 생명성을 보여준다.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어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공원의 물을 어렵게 길어 와서 살아야 하지만 아이들은 먹고 난 컵라면에 흙을 채워 씨앗을 심는다. 모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 있는 풀을 기르고 힘들게 떠온 물을 화초에 주기도 한다. 놀이와 무언가를 기르는 것은 아이들 방식의 삶을 영속시키는 힘이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게 한다.

아스팔트에 쌓은 조금의 흙속에서 풀이 자라듯 아이들은 어른의 부재 속에서도 자란다. 막내가 죽자 아키라는 평소 동생이 좋아한 초콜릿 과자와 함께 비행기가 보이는 공항근처에 묻어준다. 자기들 방식으로 마음을 다해 장례를 치

룬 것이다. 처음 올 때 트렁크에 막내가 들어가지 않자 큰 트렁크에 싣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어른들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아카라는 동생이 죽어서도 남은 동생들과 왕따를 당하는 여자아이와 함께 커간다.

엔딩장면에 흐르는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누른다.

보석 노래: 다카코 다테

한밤중에도 하늘에게 물어봐도
별들만 반짝일 뿐
마음속에서 흘러 나온 물이
검은 호수로 흘러갈 뿐
다시 한번 천사는 나를 바라볼까?
내 마음속에서 물놀이를 할까?
겨울바람에 내 눈물이 흔들리고
어둠속으로 날 인도한다.
얼음같이 차가운 눈동자로
나는 커가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없는
악취를 풍기는 보석

유엔 아동권리가 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배우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아이들은 권리 밖에 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에 존재하는 이 아이들은 존재자체도 거부당한 존재인 것이다. 영화는 덤덤하게 그려졌지만 묵직하게 누르는 마음을 털어낼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어정은

도쿄 니시스가모의 한 아파트에 방치된 4남매가 있었다. 14살 남자애, 그리고 7살, 5살, 2살의 여자애들. 그들과 살고 있었던 엄마는 1년여 전 집을 나간 상태다. 집주인이 이상하다고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심하게 악취가 나고 아이들은 거의 뼈만 남아있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다. 그런데 5살 여자애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의 조사결과 이집을 드나들던 아이 B에 의해 맞아 죽었고 장남과 함께 사체를 멀리 떨어진 숲에 유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열도를 뒤집어 놓은 '나시스가모의 버림받은 4남매 사건'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의 모티브가 되었다. 영화에서의 아이들은 감독의 눈으로 재조명되었다. 훨씬 가볍고 때로는 즐겁다. 특히 장남의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은 애틋하다. 실제 사건에서의 장남은 동생이 죽어갈 때 방조했던 아이였다. 장남의 친구였던 B는 자신의 라면을 먹은 5살 여자애에게 화가 났고 뼈를 부러뜨려야겠다고 말했다. 장남은 그러라고 했다. 그는 벽장위에 여자애를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하고, 머리를 아래로 해서 떨어뜨렸다가, 떨어질 때 발로 배를 차는 등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아이가 비명을 지를수록 더 재밌어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다.

4남매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 영화에서 엄마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갈 필요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전세를 얻을 때 집주인에게 남편은 해외에 있고 공부 잘하는 장남하고 둘만 산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아이가 4명이어서 쫓겨난 적이 있다), 장남을 뺀 나머지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베란다에 얼굴을 내밀수도 없었다. 철저하게 갇혀 지낸 것이다. 영화는 장남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 모든 짐을 장남에게 떠맡기고 새로운 애인에게 가는 엄마에게 장남이 말한다. 엄마는 정말 제멋대로라고. 그러자 그 엄마가 말한다. 제멋대로는 아무 말없이 떠난 네 아빠다. 엄마는 행복해지면 안 되느냐. 그렇게 떠나는 엄마의 짐을 들어주는 장남은 어떤 생각일까.

아이답지 않게 사려 깊은 눈과 표정을 가진 장남은 돈이 떨어지고 단전, 단수가 되고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동생들을 챙긴다. 사람들 몰래 동생들을 데리고 밖에서 뛰어 놀기도 한다. 관객으로서 그런 장남에게 감정이 이입되어 영화의 끝이 해피앤딩이길, 구세주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애들을 보살펴주길 간절히 바랬다. 그런 끝은 없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계속 남는 것으로 영화는 종료되었다. 영화에서의 아이들은 사건에서의 아이들과 아주 다르다. 아이들은 비참하게 맞아 죽지도 않고 계속 굶어서 뼈만 남지도 않는다. 작지만 어쩌다 오는 엄마의 돈으로 남매들이 똘똘 뭉쳐서 나름 씩씩하게 산다. 마지막 장면에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다.

버림받은 4남매 사건의 충격은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렸다고 한다. 분노보다는 슬픔. 분노하기에는 그 애들을 보고도 못 본채 방치한 우리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모두 비참하게 살거나 죽어야한다면 그 사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어디엔가 있을 비슷한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변일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생각과 각성을

할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감독은 영화가 사건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배역을 맡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몰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바랬다고 했다. 그래서인가, 영화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비참한 현실에서도 잔잔하고 천진난만하다. 영화가 다 끝나고 생각했다. 왜 우는 장면이 하나도 없을까.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고고한 것일까. 감독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들, 그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들이 그런 것이었다면….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것인가, 위로가 되는 것인가.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영화이다.

걸어도 걸어도

Still Walking, 歩いても 歩いても, 2008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장르 드라마
국가 일본
러닝타임 114분

성인지 체크 점수 +10

영화 <걸어도 걸어도>

박영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 영화는 오래전에 봤던 영화이다. 다시 한 번 보게 된 것은 울림의 씨네페미니즘 영화토론에서 주최한 <윤가은 감독과의 만남> 시간에 윤 감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윤가은 감독은 <우리들>, <우리집> 등을 만든 유명한 영화감독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몇 편이나 보았지만 보고나서 '나도 영화를 만들고싶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더 놀라웠다. 영화감독은 아무나 감독하는 게 아니구나, 감독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개인적인 이유로 일본에서 7년을 살았었기 때문에 일본 영화들을 좋아하긴 한다. 특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을 좋아하기는 했다. 하지만 어떤 점이 윤가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생각하니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 단순히 그 이유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래도 역시 범인(凡人)인 나는 '이런 영화 너무 좋아~' 이지 '이런 영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니, 들지 못했다. 역시 나는 관람객이지!

고레데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은 '가족'이야기들이 많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내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것 같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형 준페이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죽었다. 그의 기일이다. 준페이의 기일을 맞이하여 가족이 모였다.

형과는 달리 둘째 아들이었던 주인공 료타는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료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5학년짜리 아들이 있는 여자와 재혼했다. 이번 형의 기일에 재혼한 아내와 그녀의 아들 아츠시를 데리고 집에 왔다. 료타는 일이 없어 지금은 놀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한다. 하루만 가족들 모르게 넘기면 된다. 누나는 친정에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데, 료타는 부모를 모시니 자기로선 찬성이라고 하지만 부인은 그래도 료타가 장남이니 모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부모는 딸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것도 싫다고 한다. 부모 생각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자기 아들과 남편, 자기 식구들만 챙기기 바쁜 딸이다.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며 병원 일에서 은퇴한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요코야마의원'간판을 떼지 않고 있다.

이 아버지는 가족의 불편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가 목욕 후 수건을 펴서 널어놓으라고 하자 펴서 널었다가 다시 돌아와 꾸깃꾸깃 구겨놓고 들어간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다. 부인의 잔소리 여지를 남겨두는 것인지 아니면 고집 있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이 또한 그의 성격을 나타낸다. 기대하던 큰아들과 달리 내세울 것 없는 료타를 맘에 들어 하지 않아 아내와 아들 아츠시 앞에서 대놓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심하게 말할 정도이다. 잘 보이려 아부하는 사위와 하루 동안이지만 며느리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는 며느리 유카리.

알듯 모를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뭔가 삐딱해 보이는 듯한 1박2일 동안 있었던 가족 이야기. 뭔가 크게 부딪히는 것도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아무 일도 없어보이지는 않는다. 영화를 다시 봐야 이해하려나? 이 가족은 한 박자씩 어긋나 있는 가족이다.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가리다보니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거기에 기억도 약해져서 사실이 왜곡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형의 기일에 모여 얘기하다 보니 어긋남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퍼즐조각이 맞춰지듯이 왜 가족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보여 준다. 그게 또한 애잔하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

이 영화의 제목인 <걸어도 걸어도>는 이시다 아유미의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노래의 가사 속에서 따왔다. 이 노래는 중년의 나이 정도면 한두번은 들어봤을 노래일 것이다. 나도 예전 가족끼리 노래방에 갔을 때 몇 번 불러본 적이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 중에 '걸어도 걸어도'라는 가사가 나온다. 노래 가사에서 영화 제목을 딴 것은 또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고레에다 감독의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도 원제목은 '바다보다도 더 깊게(海よりもまだ深く)'이다. 이 제목 역시 유명한 가수 등려군(테레사 텡)의 노래인 <이별의 예감> 가사에 나오는 구절이며 영화 속에서는 TV에서 잠깐 스쳐지나가는 장면으로 처리되는데 그것이 영화제목이 되었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이 노래는 이 영화에서는 흘려지나가는 노래가 아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밀이 담겨있다. 또한 가사처럼 평생을 '걸어도 걸어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배려를 이유로, 때로는 귀찮음으로, 때로는 불편함이 싫어서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들은 어긋나고 삐거덕거리며 알 수 없게 된다. 어쩌면 그나름 그대로 또한 인생

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걷고 걸으면'서 이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녁 식사는 이 가족의 터질 것 같은 불편한 단면을 보여준다. 결국 터지진 않는다. 몇 십 년간 늘 그래왔듯이. 문제의 저녁식사 후, 욕조에 들어간 아버지는 목욕탕 밖에 있는 어머니에게 그 레코드판 언제 샀냐고 묻는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듯 말한다. "그때 기억나시죠. 이타바시 말예요. 그 여자 아파트까지 료타를 업고 찾아갔죠. 그때 방에서 당신 목소리가 들렸죠. '걸어도 걸어도'라고요. 방해될 것 같아 그냥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날 역 입구의 카나리아 당에서 샀어요."

이 날 처음 온 며느리의 등장으로 30여년 전의 문제가 표면에 떠올려지게 된다. 아버지는 홈쇼핑으로 산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마음 속 칼을 갈고 있었다고 하면 되려나. 아들이 아파도 오지 않는 남편, 권위와 체면을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트로트를 부르며 바람피우던 남편.

이 저녁 식사의 대화는 하나의 단편이고, 영화 내내 비틀리고 꼬인 관계를 보여준다. 장면 하나하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현실적인지…. 하지만 어둡진 않다. 코미디 같기도 하다.

- 며느리에게 기모노를 주려고 챙기면서 툭툭 던지는 말, "지나미(딸)는 뭐든 달라고 해. 근데 막상 주면 나 몰라야. 전번엔 비싼 기모노를 줬지만 한 번도 안 입어. 그거 어쩌면 인터넷 거시기인가 하는 걸로 돈으로 바꾼 거 아닐까?" (며느리, 너도 그럴 거니?)
- 며느리의 보조개를 보며 귀엽다며 "여자는 몇 살이 되어도 애교가 필요해. 무척 부럽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애교로 아들 꼬신 것처럼 생각하는 걸까?)

- 얼굴 붉은데 괜찮냐고 물어봐서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렇다고 하자 “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자는 술은 받되 잔을 비우지 말란 얘길 들었지. 요즘의 젊은 애들은 좋겠네.”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며느리.(무슨 소리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저를 술만 퍼마시는 막된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어머니, 알았다고 대답하지만 바로 바다에 가는 아버지와 료타와 손자 아츠시
- 축구장에 손자와 같이 가자는 아버지.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축구가 아닌 야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아들
- 아들네를 보내며 “다음번은 설날이겠군.” 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돌아가는 버스에서 “다음 설은 안와도 되겠어. 1년에 한번 보면 됐지.”라고 말하는 아들.
- “어머님 부담 되실 텐데 다음엔 자지 말고 와요.”라고 말하는 며느리.

3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년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결국 아버지와 축구를 해보지 못했고, 아들차를 타고 쇼핑하러 가는 게 꿈이라는 어머니를 차에 태워드리질 못했다. 세월이 흘러 5학년짜리 아들은 교복 입은 학생이 되었고, 어느 새 딸도 생겼다.

묘지를 찾아 성묘를 하고 돌아가는 료타네 가족.

“나비는 겨울이 되어도 안 죽은 하얀 나비가 이듬해 노랑나비가 되어 나타난 거래.”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였더라….” (이렇게 말한 건 노랑나비에서 죽은 형을 떠올리는 어머니였다.)

영화를 보면 정말 연기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키키 키린. 이 배우는 정말이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고레에다 사단이라고 불러도 좋을만큼 고레에다 감독과 여러 작품을 같이했다. 료타 역의 아베 히로시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는 담임선생님 역으로 <태풍이 지나가고>에서는 주연 시노다 료타역으로 나왔다. 며느리 역의 나츠카와 유이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 주인공의 친구 엄마로 나왔고, 딸 역할의 유는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엄마역으로 나왔다. 아버지 역의 하라다 요시오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도 나왔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배우는 역시 어머니 역의 키키 키린이다. 이 배우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와 <어느 가족>에서 등장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에 거의 다 등장한 셈이다.

이 영화를 보고나서 <블루라이트 요코하마ブルーライト・ヨコハマ>를 여러번 들었다. 일본어 공부하며 열심히 불렀던 노래다. 미녀 가수이자 배우인 이시다 아유미의 노래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미녀가수도 할머니가 되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다.

종이달

Pale Moon, 紙の月, 2014

감독 요시다 다이하치
장르 스릴러/드라마
국가 일본
러닝타임 126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영화 <종이달>
(Pale Moon, 紙の月)

박영미

이 영화는 U+모바일tv 무료 상영에 있었는데 일본 전설의 배우 '미야자와 리에'와 내가 좋아하는 배우 고바야시 사토미가 나온다고 써있었다. 이건 무조건 봐야해! 물론 무료기간이라잖아.

미야자와 리에는 일본인이라면 이 배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국민배우이다. 네덜란드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어릴 적 모델로 데뷔해 톱아이돌이 되었으나 헤어누드 사진집과 그 매니저였던 어머니로 인해 논란이 일었고 이후 스모선수 다카노하나와의 약혼과 파혼, 거식증 소문 등의 스캔들로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한편, 남주인공 이케마츠 소스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태풍이 지나가고>(2016)와 <어느 가족>(2018)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역할을 했던 배우이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 졸이고, 다 보고 나서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도 했고, 왜 제목이 '종이달'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렇게 지난 채로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도서관에서 동명의 책을 발견했다. 가쿠다 미쓰요 장편 소설. 혹시 이 책이 지난번 그 영화의 원작? 맞다. 바로 빌려 책을 보니 영화와 다른 장면들이 있었지만 영화가 조금 이해가 된다. 책 마지막 옮긴이 권남희의 '종이달'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사진이라는 것이 나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사진관에서 초승달 모양의 가짜 달을 만들어 그곳에서 한껏 포즈를 잡으며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한다. 가족 혹은 연인과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인데 그 초승달 모양의 달은 종이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달이었다고 한다. 거기에서 비롯되어 '종이달'이라고 하면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보낸 가장 행복한 한 때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 '종이달'에 대한 이해를 하니 영화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그럼 당연히 가장 행복했던 한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포스터 차이가 느껴진다. 한국은 영화제 수상한 것과 기본 한국인이라면 잘 이해하지 못할 종이달에 대한 설명 '허영이 만들어 낸 행복한 순간'이라고 친절하게 써주었다. 이것도 알아야 보이는 거다. '그녀가 그토록 원한 건 무엇이었을까?' 소박한 차림의 여주인공이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크게 그려져 있다.
한편 일본 포스터는 원작자×감독×여주인공 이름이 크게 써 있고 화려한 차림새의 여주인공이 주위로 지폐가 뿌려져있다. 위에는 '아주 아름다운 횡령범'이라고 써있다. 영화 분위기를 표현한 것은 한국포스터인 것 같고, 내용을 쉽게 나타낸 것은 일본포스터인 것 같다. 포스터에서 이미 다 스포를 하고 있으니 자, 그럼 영화로 들어가 볼까?

처음 시작은 학생 시절의 리카. 성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메자와 리카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없다. 남편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아내에게 크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자기 일에만 충실하다.

리카는 일상의 무료함으로 은행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미모와 다정한 성품으로 고객들의 신임으로 얻으며 계약직 사원까지 되었다. 그녀의 일은 은행에 오기 힘든 노인 분들을 방문하여 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일.
어느 날 평소라면 그냥 통과만 하던 백화점이었지만 그날따라 화장품을 충동구매하는데 돈이 모자라 고객이 맡겨둔 금액에서 1만엔만 꺼내 지불하고는 바로 ATM기에서 자신의 돈을 찾아 메꿔 넣는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일탈의 시작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인 하라바야시 씨는 리카의 고객. 하라바야시 씨의 손자인 코타는 학비를 할아버지 부탁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리카는 그에게 학비를 빌려준다. 물론 고객인 하라바야시 씨의 돈으로. 이후 코타와 리카는 연인 사이가 되고 점점 더 화려한 호텔과 명품을 즐기기 되고 이를 위해 다른 고객의 돈까지 손을 대면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횡령을 숨기려 전표를 위조하고,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어 또 다른 사기 대상을 물색하고 거짓말로 계약을 맺게 하며 해외출장 가있는 남편에게도 숨기고 리카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치닫는다. 터져버릴 풍선처럼. 지켜보는 내내 불안 불안, 위태위태하다. 일상의 지루함에서 이제는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된 리카. 쾌락과 욕망의 한 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리카의 횡령은 경력직원인 유리코에게 들통 나게 되지만 마지막 장면도 인상 깊다.

리카는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말하지만 유리코는 “그래도 넌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했잖아. 내가 못한 일을 넌 했잖아. 내가 당신이라면? 난 밤을 새보고 싶어. 밤을 새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다음날 피곤하니까.”라고 말한다. 일탈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유리코는 리카의 일탈이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리카는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려고 하자 유리코가 리카를 붙잡는다. 붙잡는 유리코에게 리카는 “같이 갈래요?”라고 묻는다. 이어 사람들이 몰려오고 리카는 도망간다. 유리코는 역시 따라가지 않는다.

엔딩 장면은 동남아시아의 시장통. 우연히 만난 사과장수는 리카가 학생시절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모금운동의 사진 속 아이와 같은 곳에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다. 성가를 부르던 아름다운 모습의 소녀는 아버지 지갑 속의 돈을 훔쳐서라도 도와주었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어른이 된 리카. 지금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만감이 교차하는 리카. 그것도 일순 쫓아오는 경찰을 피해 리카는 인파속으로 피해버린다.

종이달의 삶을 사는 리카와 다음 날 피곤하니까 밤을 새 본 적 없는 유리코. 일탈의 삶과 일상에 충실한 삶. 누가 더 행복한 것일까.

가끔은 일탈을 꿈꾸지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꿈꾸는 것이 아닐까? 일탈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종이달에서 만난다.

영화속에서 뭔가 불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던 리카의 모습들. 신호대기 중 유리코를 만났을 때 “건널 거야? 말거야?”라고 묻는 유리코. 건너가는 리카.

일탈할거야? 말거야? 일탈을 해서 종이달처럼 꾸며진 환상의 세계를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나름 행복을 찾으며 살아볼 것인가?

나? 나는 그렇게 용기 있지 않아. 그리고 대학생 애인과의 멋진 연애? 그런 거 부러워할 나이도 지났어. 영화 속 여주인공에게서 대리만족 하는 거지. 그래서 영화 보는 거 아니겠어? 게다가 미야자와 리에처럼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않다고!! 답 나온 거 맞지?

세자매

Three Sisters, 2020

감독 이승원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115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세자매

성희령

11월 10일 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영화 <세자매>는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자매라는 말이 나에겐 피곤한 느낌이 들게 한다. 작은 엄마네 집 가족이 세 자매였는데, 그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언니들은 일사분란하게 치우고 동생인 우리들과 놀아주었었다. 전형적인 자매의 모습이랄까. 그런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진 않았었다. 다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내 역할 말고, 자매들끼리의 끈끈함과 연대감은 다른 누구보다 강해보였다. 그런 것처럼 영화 <세자매>에서의 희숙, 미연, 미옥도 끈끈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런데 영화가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들어가면서 각자의 입장, 그리고 각자의 삶, 기억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기억들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었다.

첫째 희숙은 딸과 살며 꽃집을 운영한다. 남편과는 이혼을 한 것인지 별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무시당하며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상황이여서 그런 걸까. 희숙은 아무도 모르게 자해를 하며 자신의 아픔을 삭이며 살아간다.

둘째 미연은 종교에 집착하며 가족들에게도 강요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남편과 사랑에 빠진 성가대 효정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며 가정을 유지하려 한다. 자신이 주도하는 삶이 독재적으로 보인다.

셋째 미옥은 술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보편적 엄마와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다 아들이 친모가 학교상담을 오도록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해보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미옥의 기억에 떠오르는 겨울밤. 미연과 미옥은 내복바람으로 동네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왜 추운 겨울밤에 집에서 몰래 나와 슈퍼를 가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미옥이, 그 사라진 기억을 다시 찾게 된다.

아버지의 생신날 모두 모인 가족들. 그 추운 겨울 미연과 미옥이 슈퍼에서 돌아온 집 앞에 큰언니 희숙은 등에 폭력의 상처를 가진 막내를 안고 울고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가 달라 아버지에게 더 맞았던 첫째와 막내.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가장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문화.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용인된 폭력. 그 안에서 세 자매와 막내는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목사님까지 생일에 초대했는데 막내 진섭이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오줌을 갈겨 식사자리가 무산되자 아버지는 연신 목사님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다. 미연은 이 모습에 학대당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에게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한다.

폭력의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과를 받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 그런 사과를 피해자인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아버지가 목사님에게는 사과라니…. 가족이 가장의 소유물

로 인식되었던 중세의 가족관이 여전히 이 영화의 아버지와 유년시절의 동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 지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마지막 세 자매가 다정하게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은 그 씁쓸함을 사라지게 했다. 자매애를 통해 각자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였달까.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어!

김화숙

<세자매>에는 어린 미연과 미옥이 밤에 동네 슈퍼에 달려가는 장면이 있다. 뭘 사려고 간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을 피해 도망가는 아이들이었다.

추운 겨울 밤 내복 바람에 맨발로 온 아이들은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동네 아저씨 둘과 맞닥뜨린다. 그 집 상황에 대해 혀를 내두르면서도 아저씨들은 거기까지였다. 신고 좀 해줄 수 있느냐 묻는 아이들에게 그들은 이노무 새끼들, 아이들을 나무란다.

어서 집에 돌아가 아빠 그만하라 매달리란다.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언니 죽어요, 살려달라고 빌어라, 그게 아저씨들의 조언이었다. 쭈쭈바를 얻어먹고 아이들은 힘없이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두 소녀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로 평생 따라다녔다.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아동 학대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서 피해자보다 늘 가해자가 보호받는 현실이다. 가해자의 심기와 안녕만 깨알같이 걱정하는 사람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안녕을 묻는 현실이 보인다.

그들의 조언대로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가 잘못했다고 빌었을 것이고 아빠에게 매달렸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빠가 감옥에 갇히고 인간쓰레기가 될 거라는 협박을 들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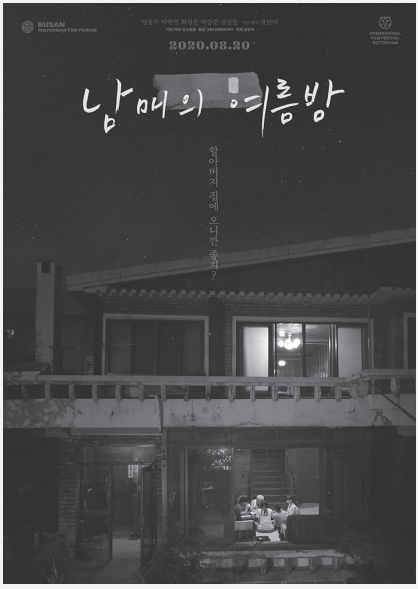
세자매

김희정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세자매의 이야기이다. 문소리와 김선영의 연기가 막내로 나오는 장윤주에 비해 압도적이다.

영화에는 과장된 설정이나 오버액션이 많이 나와서 집중을 깨뜨렸다. 예컨대 마지막에 김선영이 울면서 음식을 먹는 장면 같은 것. 그럴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 또 독실한 장로이자 가정폭력범인 아버지가 창에 머리를 박으면서 뉘우치는 것. 정말 이상한 설정이라고 생각했다. 과연 그렇게 처참하게 아이들을 때렸던 인간이 쉽게 참회할까? 독실한 기독교여서? 어머니는 더 이상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방관한자, 아버지와 공동정범이 아닌가? 어디서 울면서 착한 척인가?

문소리와 김선영의 연기력이 어마하게 좋다고 느껴지는 장면도 많았다. 개인적으로 문소리가 바람피운 남편에게 발정난 개새끼라고 말하는 장면이 제일 맘에 들었다. 교회신이 많이 나오는데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독실한 둘째 문소리의 가식을 잘 보여준다. 남편의 바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순종적인 그녀의 인생이 파탄 날까 봐 조마했었는데 상대녀를 조용히 발로 차고 남편을 협박할 줄 아는 반전의 위선녀였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찝찝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녀의 그 모습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영화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중심은 단연 문소리였다.



남매의 여름밤

Moving On, 2019

감독 윤단비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104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모르는 가족의 알 것 같은 이야기

이희남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100일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영화를 봐도 책을 읽어도 산책을 해도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된다. 오늘 저녁은 뭐 먹나 같은 고민처럼 오늘은 뭘 쓰나 이러고 있다는. 그렇다고 그게 아직까진 스트레스로 작용하진 않는다. 나쁘지 않다.^^

옥주와 동주남매는 엄마 없이 아빠와 같이 산다. -아빠의 사업실패로 이혼한 듯- 여름방학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할아버지의 양옥집에 가게 된다. 더위를 드셔서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한다고 아빠는 말하지만 옥주네가 할아버지 집에 얹혀사는 분위기다.
할아버지의 집은 2층 양옥집이다. 마당에는 고추며 토마토며 포도, 각종 야채와 과일이 자라고 있다. 옥주아빠는 혼자서 남매를 키우는데 짝퉁 운동화를 팔면서 배달일도 겸한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도 틈틈이 하며 남매를 보살핀다.

옥주는 10대 소녀로 사춘기라 다소 까칠한 면이 있지만 눈치도 빠르고 속도 깊은 편이다. 나름 연애도 하는데 연애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해한다.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한다. 동생 동주는 초등학생인데 귀엽고 애

교도 많다.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운 어린 나이라 누나와는 달리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한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표정으로 남매를 바라보는데 말은 없지만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분 같다. 개인적으로 이 집이 그런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다. 영화에서 불이 켜진 여름밤의 양옥집을 비춰 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볼 때마다 포근한 느낌이었다.

할아버지 댁에는 이혼할 생각으로 집을 나온 고모도 합류하게 된다. 결국 이 집에는 할아버지, 아빠와 고모, 옥주와 동주 두 쌍의 남매가 지내게 되는 것이다.

처음 영화를 볼 땐 옥주 동주 남매만 생각하고 봤는데 점점 두 쌍의 남매가 눈에 들어왔다. 두 남매의 모습이 현재와 미래의 모습 같았다.

동주아빠와 동주, 할아버지와 동주아빠. 두 쌍의 부자지간 또한 대칭구조란 생각이 들었다.

감독은 몇 가지 에피소드와 대사를 통해서 대칭구조를 보여줬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옥주가 아빠 몰래 아빠가 파는 운동화를 몰래 가져다가 남자 친구에게 준다. 아빠와 고모는 병세가 심해진 할아버지에게 의논하지 않고 집을 팔기 위해 내놓는다.

옥주가 아빠에게 할아버지 몰래 집을 내놓는 건 아니지 않냐고 아빠에게 따지자 아빠는 너는 나 몰래 운동화 가져가지 않았냐고 하니까 옥주가 남자 친구를 만나서 신발을 벗겨오는 장면은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옥주의 심리가 잘 느껴져서 인상적이었다.

두 쌍의 남매는 평화로운 듯하면서도 상처와 고민들이 많다. 그런 고민과 상처들을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지내면서 치유해가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배우들이 알려지지 않은 얼굴들이라 그런지 진짜 가족 같아서 영화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 특히 영화의 배경인 2층 양옥집과 할아버지 나이만큼이나 오래됐을 듯한 선풍기, 자개농이며 소품들이 너무 사실적이었다. 또 등장인물들의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어떨지가 잘 와닿는 영화였다. 어쩌면 충분히 막장으로, 자극적으로 갈 수도 있을 가족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낸 감독이 참 멋지단 생각이 든다

불 켜진 2층 양옥집의 여름밤은 시원하다.

일 포스티노

The Postman, Il Postino, 1994

감독 마이클 레드포드
장르 드라마
국가 이탈리아
러닝타임 114분

성인지 체크 점수 +10

1996년 여름, ‘메타포’가 가슴에 박히다

이미진

설레고 탐나던 사랑이 막 끝나갈 즈음, 그해 여름의 끝은 처절했다. 모든 연애의 끝이 그러하듯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닌 상대가 내린 이별 결정은 더 많이 처량하고 더 많이 비참하고 더 많이 질척거렸다.

그해 여름의 끝, 큰 기대 없이 허전한 마음으로 찾은 영화관에서 메타포를 만났다.

1996년 일기 노트에는 일 포스티노의 당시 영화 팜플렛이 붙어있고 영화에 대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이탈리아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그를 위한 전담 우체부였던 ‘마리오’가 사랑에 눈뜨고, 시에 눈뜨고, 세상에 눈뜨는 이야기라고 노트엔 적혀 있다. 마리오가 처음 ‘시’라는 것에서 공감을 느낀 건 바로 ‘인간이라서 피곤하다’라는 구절이었다. 아마 나도 끝나가는 사랑 때문에 감정이 너덜너덜 해지고 있던 터라 인간이라서 피곤하다는 장면에서 이미 이 영화에 빠져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장면 장면이 다 마음에 들었지만 내가 오래오래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된

장면은 따로 있었다.

네루다 : 이 섬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봐.
마리오 : 베아트리체 루소!
네루다 : !

막 사랑에 빠져버린 마리오에게 섬은 더 이상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로 혹은 수평선 저 끝에서 반짝이는 물비늘로 인해 아름다운 곳이 아니게 되었다. 그저 그가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 루소의 존재만으로 그 섬의 아름다움은 충분했다.

그땐, 내게 안산이 그랬다. 내가 사는 곳이어서도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도 내 절친들이 버티는 곳이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안산은 사랑하는 그 남자의 직장이 있는 곳이어서 내겐 소중한 곳이었다. 그 남자의 차종인 흰색 엘란트라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시절이었기에 엘란트라가 다니는 전국의 모든 도로가 설렘의 길이었다. 그러므로 마리오의 대답은 곧 내 마음의 대답이기도 했다.

이 영화를 보고 학력고사를 준비하며 외웠을지도 모를 metaphor란 단어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다. 왜냐면 이 영화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메타포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나의 모든 아이디는 거의 20년간 metaphor를 중심으로 숫자나 특수문자가 결합 되는 형태로 생성되어 왔다. 지금은 다른 아이디와 겸해서 쓰고 있지만 메타포는 여전히 내 인생의 단어이다. 얼마 전 학원 영어 시험에 메타포가 나와 흐뭇해하던 아들의 미소가 떠오른다. 엄마 아이디 덕에 단어 하나 공짜로 얻었다고 기뻐하던 모습이.

이 영화의 전반부는 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마리오의 개인적 삶이, 후반부에는 개인의 삶을 넘어 혁명가로 투쟁하는 투사 마리오의 삶이 그려지는데

솔직히 후반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마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있어서 후반부에는 큰 공감을 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싶다.

내 인생 영화 한 편을 고르라면 주저 없이 '일 포스티노'를 말해온 나지만 1996년 이후 한 번도 이 영화를 다시 보진 않았다. 후반부가 궁금해서 다시 볼까도 했지만 한껏 아름답게 기억되는 영화에 대한 느낌이 혹시라도 달라질까 하여 영원히 봉인해두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오래된 사진처럼 선명도가 떨어지고 빛이 바랜 기억이나마 이 영화는 여전히 내 인생 영화 1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큰엄마의 미친 봉고

MY BIG MAMA'S CRAZY RIDE, 2020

감독 백승환
장르 드라마
국가 한국
러닝타임 99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페미니즘 로드무비의 발견

김화숙

<큰엄마의 미친 봉고>는 여자들이 봉고를 타고 '단체로' 일탈하는 이야기다. 명절날 아침에 예고도 없이. 식재료가 잔뜩 쌓인 부엌에서 바쁜 여자들과 거실에서 한가하게 노는 남자들. 큰엄마에게 큰아빠는 소리를 지르며 뭘 찾아달라고 한다. 순간 화면엔 자동차 열쇠가 클로즈업 되고 큰엄마는 집안의 여자들을 향해 외친다.

"아이구, 뭐 이렇게 안 산 게 많냐~ 너무 많이 빼먹었다. 우리 장 좀 보고 올게요~~"

큰엄마와 두 동서, 며느리와 큰손녀에 질부 될 은서까지, 여섯 여자들이 큰엄마의 봉고를 타고 떠난다. 손자 하나도 끼어 있다. 집에 남은 남자들은 우스꽝스런 장면을 연출하고 여자들은 모험을 즐긴다. 이 두 세계가 '라이브'로 연결되어 영화의 재미를 더해 준다.

큰엄마(정영주)의 봉고는 노래방이 되고 수다방이 된다. 여자들은 낯선 길을 운전 교대하며 잘도 달린다. 큰아버지의 카드로 수백만 원 긁어 모두 멋들어지게 새 옷을 사 입는다. 잘생긴 남자 셋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침밥도 먹는다.

캠핑장에서 여자들은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통성명을 한다. 시집중심 호칭 말고 원래 이름이 나온다. 문중 땅 판 돈을 둘러싼 오해도 풀리고 솔직한 대화가 오간다. 여자들의 꿈과 개성과 연대를 이야기하고 집 나온 진짜 이유도 밝혀진다. 돌아가신 둘째 시어머니의 삭제된 이름을 불러내어 조명을 비춰 준다.

<큰엄마의 미친 봉고>를 나는 여성 성장 영화요 페미니즘 로드무비라 부르련다. 모험하고 성장하는 여성 서사가 얼마나 희귀한가. 여자는 왜, 언제, 집을 떠나는가? 영화는 묻는다. 방랑하고 외도하고 모험하는 건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이야기라고? No!

봉고의 여자들은 떠나야 할 것과 가야 할 데를 안다. 이들을 '집사람'이라 하지 말라. 집은 여자의 유일한 처소가 아니다. 미친 봉고가 달리는 길에 좌절과 분노가 있고 좌충우돌이 있다. 울고 웃고 성찰하며 화해한 여자들이 연대할 때 가족도 남자들도 달라진다.

<델마와 루이스>(리들리스콧, 1991)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로드무비 장르를 여성 서사로 만든 첫 영화였다.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던 주부 델마(지나 데이비스)와 식당 웨이트리스 루이스(수전 서랜던)가 의기투합해 여행을 떠난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떠난 그들 앞엔 형편없는 남자들이 나타난다. 집에 있는 남자들까지 가세해서 여행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이어진다. 두 여자는 강간미수범을 살해하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쫓기게 된다. 그랜드캐니언을 두 사람이 탄 차가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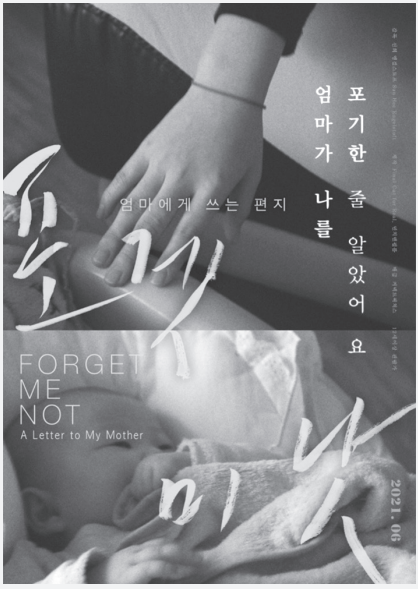
페미니즘 로드무비로 <와일드>(장마크발레, 2015)만한 영화가 있을까.(셰릴

스트레이드의 원작 에세이도 숨이 멎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엄마의 죽음 이후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셰릴(리즈 위드스푼)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극한의 여정 4,285km의 PCT(퍼시픽 크레스트 트레킹)를 홀로 걸어서 완주하는 이야기다.

셰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생에 한 번은 모든 것을 걸고 떠나야 할 길이 있다."

<콩나물>(윤가은, 2013)도 있다. 여섯 살 소녀에겐 혼자 집 밖에 돌아다니는 게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다. 할아버지 제삿날 보리(김수안) 혼자 콩나물을 사러 집을 나선다. 소녀를 따라다니는 카메라를 따라 관객도 길을 떠나게 된다. 보리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관객도 길 위에 있게 하는 로드 무비다.

<큰엄마의 미친 봉고>, 페미니즘 로드무비의 발견이다.



포겟미낫 - 엄마에게 쓰는 편지

Forget Me Not-A Letter to My Mother, 2019

감독 신선희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한국
러닝타임 86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포겟미낫

김화숙

개봉 영화 <포겟미낫>을 신촌 독립영화관 '필름포름'에서 봤다. 이 땅에서 '미혼모'란 무엇인지, 끝없이 질문하게 하는 영화였다.

감독 선희 엥겔스토프는 1982년생 해외 입양인이다. 생후 4개월 만에 덴마크로 입양되었다가 영화감독으로 한국에 왔다. 친엄마를 찾고 싶은 그를 어머니는 만나 주지 않았다. 시설 미혼모들의 일상을 찍으며, 자신을 입양 보낸 어머니의 입장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랑도 인권도 그들에겐 허망하고 뜬금없는 소리였다. 남녀의 사랑이란 애시당초 있기나 한지, 있대도 얼마나 기울어진 개념인지 말이다. 여성상위 시대라 말하는 이들은 <포겟미낫>을 볼지어다. 이 땅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산다는 게 무얼 뜻하는지.

미혼모라는 어린 여자들은 결코 홀로 임신하진 않았다. 더러는 사랑이라 했고 더러는 폭력이었다. 왜 저들만 사지로 몰려야 한단 말인가. 선희 엥겔토프 감독 역시 저런 어린 엄마에게서 태어나 버려진 한 여자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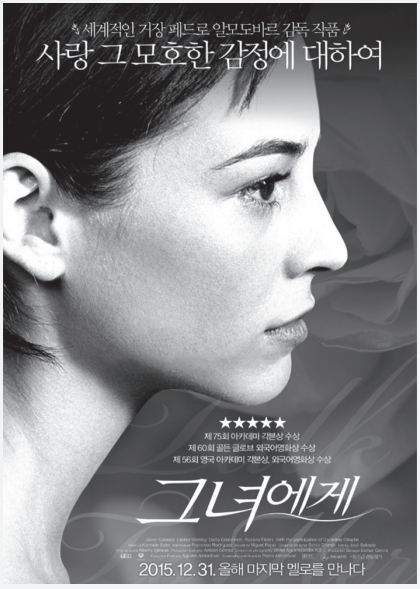
'미혼모'라는 딱지는 정당한 걸까? 너무 의심스럽게 들린다. 어린 엄마들은 자

기 몸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 이걸 누가 맘대로 쥐락펴락하는지 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아기를 빼앗아가는 게 누구인지도 보여주었다.

이 공고한 가부장 사회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함으로써 유지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존재를 삭제하고 배제하는 이들이 있었다. 민주주의와 저출생을 말하는 나라의 민낯이었다. 성평등은 허망한 구호였다.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들에게 인권은 없었다. 부모에게도, 상대 남자에게도, 이 사회 전체에게도, 그들은 지워야 할 '흠'이었다.

아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위선과 체면과 변명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나라. 존엄한 생명인데, 존재의 가치와 운명이 그렇게도 갈려야 하는지. 국가는 국민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없단 말인가. 저들의 재생산권은 왜 지지받지 못한단 말인가.

포겟미낫. 날 잊지 말아요. 날 잊지 말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여기까지밖에 못 쓰겠다. 잊지 못할 영화, 다시 봐야할 영화다.



그녀에게

Talk to Her, Hable con ella, 2002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장르 드라마
국가 스페인
러닝타임 113분

성인지 체크 점수 -3

몸짓으로 사랑을 말하는 영화, <그녀에게>

신은향

<그녀에게>는 스페인의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이다. 그의 영화는 색채와 춤, 음악, 그림 등을 영화적 장르에 골고루 배치하여 상징체계를 만든다. 상징체계는 영화를 하나의 예술 영역에 올려놓고 있다.

이번 영화에도 강렬한 색채와 함께 피나 바우쉬의 '카페 뮐러' 공연, 멕시코 국민 가수 카에타노 벨로소의 '쿠쿠루쿠쿠 팔로마' 노래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만들었다.

영화의 첫 장면은 피나바우쉬의 춤극 '카페 뮐러'로 시작한다. 슬픔에 가득찬 여인이 몸짓은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하다. 주변에 장애가 되는 의자가 있지만 여인이 의자에 걸리지 않게 의자를 치워주는 남자와 눈을 감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는 여인은 영화속 주인공의 모습과 같다.

이 춤극은 고대극의 프롤로그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극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에필로그로 남녀가 서로 마주보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영화의 시작이 혼자 추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한 춤이었다면 마지막은 함께 하는 즐거운 춤이다. 새롭게 시작된 마르코와 알리샤의 사랑을 의미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감독은 영화 속 다양한

공연을 통해 모호한 사랑의 감정을 몸짓으로 깊이 있게 전하고 있다.

남자간호사 베니뇨는 발레를 하는 알리샤의 모습을 보고 한 눈에 사랑에 빠진다. 알리샤가 교통사고로 코마상태가 빠지자 그녀를 헌신적으로 돌보게 된다. 여행지 가자 마르코는 투우사 리디아를 인터뷰하게 된다. 사랑의 상처를 가진 둘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만 리디아가 투우 경기 중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진다. 베니뇨와 마르코는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피다 친구가 된다. 알리샤와 소통한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말을 하는 베니뇨와 다르게 마르코는 의식이 없는 리디아가 낯설게 느껴진다. 더 이상 리디아를 사랑하는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마르코에게 베니뇨는 말한다.

“말을 하세요. 여자의 뇌는 신비해요. 특히 이런 상태에는요. 여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말을 해야 하죠. 생각의 표시도 가끔 해줘야 하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마르코는 떠나고 베니뇨는 코마 상태에 빠진 알리샤를 임신시켰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된다. 알리샤는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그것을 모르는 베니뇨는 알리샤를 볼 수 없음에 괴로워하다 자살하게 된다. 영화에서 강간하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베니뇨가 알리샤에게 <작아지는 남자>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베니뇨 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하게 만 한다. 무성영화 <작아지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질속으로 들어가 사랑을 완성하는 내용이다. 모든 것을 다 관객의 상상에 맡기고 있다.

<그녀에게> 영화는 관객에게 끊임없이 거리두기를 요청한다. 영화의 시작과 끝에 ‘카페뮐러’ 공연과 카에타노 벨로소의 ‘쿠쿠루쿠쿠 팔로마’ 노래를 부르는 장면, <작아지는 남자> 무성영화의 장면 등은 영화는 현실이 아니고 예술

작품이라고 말하며 영화 내용에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있다. 영화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느낀 사랑을 다시 보게 만들고 카페뮐러 공연과 투우하는 리디아의 몸짓을 통해 사랑의 몸짓을 느끼게 해준다.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은 멕시코 국민가수인 카에타노 벨로소의 '쿠쿠루쿠쿠 팔로마'를 부르는 장면이다. 감독은 멕시코에 갔을 때 멕시코 국민가수 카에타노 벨로소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 영화에 삽입된 그의 음악은 사랑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쿠쿠루쿠쿠 팔로마
사랑은 떠나갔네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랑은 없고
다만 내 맘속에
생각이 꼬리를 무네
앙금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탑처럼 솟아올라
쿠쿠루쿠쿠 팔모마
아야야야야 비둘기
쿠쿠루쿠쿠 팔로마 잿빛 구름 속 사라져
미움의 술이 흐르고
슬픔이 흥건할 때
오래된 기억의 가시넝쿨이
치렁치렁 날 감싸
어때요 내 목에 걸린
피흐른 심장을 쪼아먹네
쿠쿠루쿠쿠 팔로마

아야야야야 비둘기
쿠쿠루쿠쿠 팔로마
잿빛 구름속 사라져
사랑은 갔네
비둘기 내 맘속에만 있네
심장을 쪼아 비둘기
아야야야야 비둘기
쿠쿠루쿠쿠 팔로마
아야야야야 비둘기
쿠쿠루쿠쿠

예술은 낯선 것을 찾아가는 것이며 낯선 것을 만나는 것이다. 예술은 상징체계를 갖고 있다. 그 상징을 해석하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그것은 하나의 유희가 된다. 영화 <그녀에게>는 나에게 예술의 유희를 맘껏 즐길 수 있는 영화였다.

더 와이프

The Wife, 2017

감독 비욘 룬게
장르 드라마
국가 영국, 스웨덴 등
러닝타임 100분

성인지 체크 점수 +11

글을 쓰는 이유는 뭘까?

신은향

글쓰는 일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쓰는 이유는 뭘까? 영화 <더 와이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정한 작가는 책을 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꼭 말해야만 하는 다급하고도 사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작가는 글을 써야합니다. 숨을 쉬어야 하듯 계속 써나가야만 하죠. 거절 편지가 셀 수없이 쌓이고, 부모 아내가 돈을 벌어 오라며 잔소리를 해도 작가는 써야합니다. 쓰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리거든요.’

조안은 매일 8시간씩 소설을 썼다. 그녀가 쓴 글은 남편 조셉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이후 그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둘의 비밀을 알 리 없는 세상 사람들은 조셉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다. 주변의 쏟아지는 관심과 축하에 취한 조셉은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행동한다. 대외적 인사말에서는
“이 여인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는 “제 아내는 글을 안 써서 다행이에요 그랬다면 저는 평생 슬럼프에 빠졌을 거예요.”라고 말을 하면서 조안에게 모멸감을 준다.

남편을 위해 헌신한 조안은 심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이 책은 다 자신의 책이라고 하자 조셉은 말한다. “이건 내 이야기야. 내 지성,

내 가족, 내 아이디어야.” 그런 조셉에게 조안은 말한다. “이건 내 문장, 내 고통. 당신이 저지른 망나니짓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며 홀로 보낸 시간들이라구요.”

이 영화는 대필한 아내의 억울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지만 사랑을 택한 조안과 재능은 없지만 유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조셉의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로 볼 수 있다.

조안은 유부남이면서 문학교수인 조셉을 사랑했다. 둘의 불륜으로 교수직에서 파직되고 이혼을 당한 조셉은 좌절한다. 그는 재능은 없지만 유능함을 인증하는 타이틀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조안의 권유로 소설을 썼지만 그의 작품은 허접했다. 사랑보다는 자신의 유능함을 더 사랑한 조셉을 위해 조안은 그의 소설을 수정해주게 되고 이후 조셉은 유명한 소설가가 된다. 조안이 글을 쓴 것은 사랑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책이 유명해질수록 조셉의 마음 속 무능함은 더 커져만 갔다.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조셉은 많은 외도를 하게 된다.

영화에서 조셉이 과자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많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이야기를 많이 한다. 잦은 외도와 음식을 탐하는 것은 조셉의 공허함을 표현 한 것 같다. 거짓된 마음이 인간에게는 커다란 짐이 된다. 조안 덕분에 성공은 했지만 자신이 이룬 성공이 아니기에 공허함이 컸을 것이다. 그에 반해 조안은 처음에는 조셉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글을 썼지만 글을 쓰면서 성장하게 된다.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기로 결심 하는 것도 조안이다.

‘그의 영혼이 천천히 쓰러진다. 이 세상에 힘없이 내리는 눈소리를 들으며 눈은 힘없이 마치 지금이 마지막 하강인 듯 산자와 죽은 자 위로 떨어진다.’

이 시는 조셉이 조안에게 들려준 것이다. 또한 조셉이 자주 여자들에게 작업 걸 때 들려준 시이기도 하다. 영화 마지막에 죽은 조셉을 보고 있는 조안을 비추던 카메라 시선은 서서히 옮겨 창밖을 보여준다. 창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다. 시에서처럼 죽어 있는 조셉 위로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이것은 거짓의 삶을 살았던 조셉의 영혼이 스러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로 나의 욕망의 끝을 볼 수 있었다. 조셉의 모습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글쓰는 일은 힘들다. 난 이 힘든 일을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다. 조셉처럼 능력이 없으면서 잘 쓰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욕망이 부풀어 올라 자주 이런 상상을 했었다. 헛된 욕망의 끝을 영화를 통해 봤기에 욕망의 부추김을 따르기보다 더디지만 꾸준하게 나의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게.

글을 쓰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수정하면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하지만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글쓰기가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부록

- 씨네페미니즘 성인지 체크리스트
- 씨네페미니즘 성인지 체크리스트 점수

씨네페미니즘 성인지 Check List

2021 경기도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나두나두 성평등 영화평론가] 성인지 Check List입니다. '성평등 관점으로 영화보기'와 '성평등 영화 만들어가기' 담론 형성을 위한 평론 활동입니다. 아래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씨네페미니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제목 :
연도/감독/장르 :
작성자명 :

성인지 Check List 1

1. 마코모리테스트 : 마코모리는 영화<퍼시픽 림>의 여주인공 이름으로 백텔테스트를 보완한 성인지 테스트방법

한 명 이상의 여성이 등장하나요?
☐ 예 ☐ 아니오

그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그 이야기가 남성 인물의 이야기를 보조하는데 그치나요?
☐ 예 ☐ 아니오

성인지 Check List 2

2. 스테레오타입 테스트 : 고정관념을 알아보는 부정적 테스트

여성이 전적으로 남성의 구출 혹은 구원에 의지하나요?
☐ 예 ☐ 아니오

여성의 행동이나 결단이 설득력 없이 소개되며 남성을 곤경에 빠트리나요?
☐ 예 ☐ 아니오

여성이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에서 구색 맞추기나 감초로 기능하나요?
☐ 예 ☐ 아니오

돌봄이 설득력 있는 서사없이 여성의 당연한 의무나 본성으로 부여되나요?
☐ 예 ☐ 아니오

여성이 일차원적 이성애 로맨스의 대상으로만 기능하나요?
☐ 예 ☐ 아니오

과도하게 성애화 된 자극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여성이 존재하나요?
☐ 예 ☐ 아니오

자기 서사 없이 (범죄 등의) 피해자로만 전시되는 여성이 존재하나요?
☐ 예 ☐ 아니오

성인지 Check List 3

3. 다양성 테스트(성소수자, 장애인, 다양한 인종.종족.국가)

위 다양한 인물이 영화에 등장하나요?
☐ 예 ☐ 아니오

그 인물이 주인공인가요?
☐ 예 ☐ 아니오

스테레오타입으로 표상되고 있나요?(ex. 범죄자, 혐오대상)
☐ 예 ☐ 아니오

나만의 감상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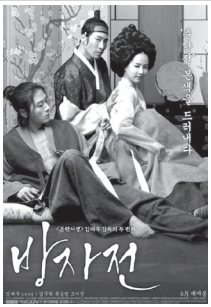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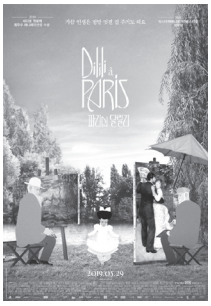
4.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요.

5. 나만의 감상평 쓰기
(긴 글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ullim0505@hanmail.net/작성자 명기)

씨네페미니즘 성인지 Check List 점수

질 문	답변 / 점수			
1. 마코모리 테스트	답변	점수	답변	점수
한 명 이상의 여성이 등장하나요?	예	+1	아니오	-1
그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나요?	예	+1	아니오	-1
그 이야기가 남성인물의 이야기를 보조하는데 그치나요?	예	-1	아니오	+1
2. 스테레오타입(고정관념) 테스트	답변	점수	답변	점수
여성이 전적으로 남성의 구출 혹은 구원에 의지하나요?	예	-1	아니오	+1
여성의 행동이나 결단이 설득력없이 소개되며 남성을 곤경에 빠트리나요?	예	-1	아니오	+1
여성이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에서 구색 맞추기나 감초로 기능하나요?	예	-1	아니오	+1
돌봄이 설득력 있는 서사없이 여성의 당연한 의무나 본성으로 부여되나요?	예	-1	아니오	+1
여성이 일차원적 이성애 로맨스의 대상으로만 기능하나요?	예	-1	아니오	+1
과도하게 성애화된 자극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여성이 존재하나요?	예	-1	아니오	+1
자기 서사없이 (범죄 등의) 피해자로만 전시되는 여성이 존재하나요?	예	-1	아니오	+1
3. 다양성 테스트(성소수자, 장애인 등)	답변	점수	답변	점수
위 다양한 인물이 영화에 등장하나요?	예	+1	아니오	-1
그 인물이 주인공인가요?	예	+1	아니오	-1
스테레오타입으로 표상되고 있나요? (ex. 범죄자, 혐오대상)	예	-1	아니오	+1

ex) 영화별 성인지 Check 점수 비교

영 화	제목연도감독/성인지 체크 점수	이 유
	스파이더맨2 2004 샘 레이미	여성이 남성의 영웅화를 위한 구색 맞추기, 남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역할로 존재
	성인지 체크점수 -3	
	방자전 2010 김대우	여성이 자기 서사를 갖고는 있으나 성애화 된 자극의 대상으로 소비됨
	성인지 체크점수 +3	
	코다 2021 션 헤이더	마코모리 테스트,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테스트, 다양성 테스트에서 모두 만점을 받음
	성인지 체크점수 +13	
	파리의 딜릴리 2018 미셸 오슬로	마코모리 테스트,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테스트, 다양성 테스트에서 모두 만점을 받음
	성인지 체크점수 +13	